

설렘이 열리다 그 시작은 당신의 엣지로부터

이것은 한번도 열린 적 없던 창
또한,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
모두가 꿈꾸던 혁신은
당신의 빛나는 엣지가 되었다



Samsung GALAXY Note Edge

• 새로움을 여는 혁신적 디스플레이 Edge Screen • 방해 없이 대화면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Interruption-free View
• 다양한 패널로 편리하게 쓰는 Edge Screen 편의 기능 * 실제 제품 화면은 사용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세계한인 전문채널

www.worldkorean.net

2014년 11월 13일 목요일 <제101호>

월드코리아신문 1부=1천원

W6 Korea

월드옥타
18대 집행부 공식출범



J1 Japan-Tokyo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창립50주년 기념식 연다



J8 Japan-Kyoto

[탐방기]
교토 도시샤대학의
윤동주 정지용 시비



J12 USA-Orange county

박관용
전 국회의장

“소녀상 건립운동, 한
일관계에 도움 안돼”



W13 USA-LA

김진형 회장
“LA코리아타운에 제 이름의
광장이 들어서서 영광”



김중섭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장

“한국어교육, 범국가적 지원 필요”

스페셜 리포트

J5 ... [현장] '오사카 코리아타운 페스티벌 2014' ... 빛속에도 열기 후끈
W10 ... [현장] 미주총연 '2014 차세대 컨퍼런스 및 한인회장 워크숍'

경조사 꽃배달

월드코리아 꽃집



화환 10만원
전화 82-2-6160-5352
010-7225-6200
www.worldkorean.net

한류를 창조하며 꿈, 사랑, 평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종이접기강사

KOREA JONGIE JUPGI GANGSA



- ★ 종이접기로 과학기술을!
- ★ 종이접기로 인격을!
- ★ 종이접기로 예술을!
- ★ 종이접기로 평화를!
- ★ 종이문화로 세계화를!

재단법인 종이문화재단
세계 종이접기연합
www.paperculture.or.kr

11월 12월

한인사회 주요 행사 일정표

- ◇ 주우간다한국대사관
제2회 한국어말하기 대회
-일시: 11월13일
-장소: 주우간다한국대사관
- ◇ LA한국문화원,
'전래동화이야기 속 친구들' 전시회
-일시: 11월13일~26일
-장소: 주LA한국문화원
- ◇ 민주평통 베트남협의회,
통일대박 자전거 전달식
-일시: 11월14일
-장소: 베트남 견덕 인민위원회
- ◇ 관서한인회 이사회
-일시: 11월14일
-장소: 일본 오사카시 관서한인회 사무실
- ◇ 몽펠리에 한국문화주간 행사
-일시: 11월14일~21일
-장소: 프랑스 몽펠리에 시청별관
- ◇ 스웨덴한인회, 제29회 한국학교 날 행사
-일시: 11월15일
-장소: 스웨덴 Ringvagen 한국학교 대강당
- ◇ 주밴쿠버한국총영사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간담회
-일시: 11월18일
-장소: 주밴쿠버총영사관
- ◇ 민주평통 칭다오협의회, 통일간담회
-일시: 11월19일
-장소: 중국 칭양 민주평통 사무실
- ◇ 민주평통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
통일 연날리기 대회
-일시: 11월20일
-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샌피드로 우정의 종각 앞
- ◇ 캐나다한인여성회,
자원봉사자를 위한 송년회
-일시: 11월20일
-장소: 캐나다 토론토 노스욕 한인여성회
- ◇ UAE 한인축구대회
-일시: 11월21일
-장소: UAE 아부다비 Zayed Sports City Stadium

- ◇ 뉴욕한인간호협회, 2014년 간호사의 밤
-일시: 11월21일
-장소: 미국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
- ◇ 제2회 유럽한인청소년 한글경연대회
-일시: 11월21일~30일(유럽 각 한글학교별 진행)
- ◇ 2014 켈거리한인회 송년파티
-일시: 11월22일
-장소: 캐나다 켈거리 Polish Cultural Centre
- ◇ 민주평통 베트남협의회,
'2014 효와 한반도 통일' 초청강연
-일시: 11월24일
-장소: 베트남 호치민 롯데 레전드
- ◇ 재일본한상련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일시: 11월27일
-장소: 일본 동경 오키야호텔
- ◇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 Korean Day
-일시: 11월29일
-장소: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 스퀘어
- ◇ 엘살바도르한인회, 2014년 한인의 밤
-일시: 11월29일
-장소: 엘살바도르 Santa Elena Hotel
- ◇ 재중국한국인회 총회
-일시: 11월29일
-장소: 중국 북경
- ◇ 퀸스랜드주한인회, 2014년도 정기총회
-일시: 11월29일
-장소: 호주 퀸스랜드 마살로드 프라이머리 학교 강당
- ◇ 재영한인회장 선거
-일시: 11월29일
- ◇ 동경한국상공회의소,
제16회 자선 골프대회
-일시: 12월1일
-장소: 일본 동경 東千葉컨트리 클럽
- ◇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참전용사의 날 제정기념 공연
-일시: 12월1일
-장소: 캐나다 몬트리올 Place des Arts
- ◇ 재불한인회장 선거
-일시: 12월3일
- ◇ 사우디 젯다 한인축전
-일시: 12월12일~13일
- ◇ KOTRA호치민 Kmove,
한-베 청년인력 채용박람회
-일시: 12월5일
-장소: 베트남 호치민 니코호텔 2층 볼룸

- ◇ 싱가포르한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일시: 12월5일
-장소: 싱가포르 상그릴라 호텔
- ◇ 2014년 재태한인 송년의 밤
-일시: 12월6일
-장소: 태국 방콕 엠버서더호텔 1층 대연회장
- ◇ 이탈리아 한인음악회
-일시: 12월6일
-장소: 이탈리아 로마 한인성당
- ◇ 사우디젯다 한인축전
-일시: 12월12일~13일
- ◇ 뉴잉글랜드보스턴한인회,
2014년 연말파티
-일시: 12월14일
-장소: 미국 우번 힐튼호텔
- ◇ UAE한인회,
2014년 UAE 한인 송년의 밤
-일시: 12월19일
-장소: UAE 두바이 에미레이트 골프클럽
- ◇ 몬트리올한인회, 2014년 정기총회
-일시: 12월20일
-장소: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 한인회
- ◇ 민주평통 LA협의회,
주니어평통 통일 캠프
-일시: 12월20일
-장소: 미국 LA 라마다호텔 컨벤션 홀
- ◇ 루마니아한인회 정기총회
-일시: 12월20일
-장소: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Regal Ballroom
- ◇ 미얀마한인회, 한국상품전
-일시: 12월25일~28일
-장소: 미얀마 양곤 따마도

광고 지면안내

코리안넷	W4
오라클피부과	W8
월드옥타	W14
삼성전자	W16
한우자조금	J6
KOKUSAI 익스프레스	J9
참포도나무 병원	J11
더케이 호텔	J16

동포들이 매긴 재외공관 업무만족도, 평균 65점 '양'

본지-원혜영 의원실 공동, '국가이미지 및 정부정책 인식조사' 결과 해외한인 위한 역점사업, "한글·한국어·한국역사 교육지원 절실"

재외동포 오피니언리더들이 매긴 우리 재외공관의 업무 만족도 점수는 평균 65점(양)이라는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본지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혜영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6개 대륙 46개국의 해외거주 한인 오피니언 337명을 대상으로 △외교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 △대통령 해외순방 및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사관·영사관 업무와 관련, '청렴도(70.25점)', '친절도(69.75점)', '대민서비스(66.75점)' 분야에서는 긍정적 인식이 많은 반면에 '선거공정성

및 투표편의성(63.00점)과 '교민보호(59.00점)' 부분에서는 "소극적"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교민보호'에 있어 가장 소극적(46.5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미·중·일 3국의 경우 '선거공정성 및 투표편의'를 위한 업무가 평균 이하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또, 외교부가 해외거주 한인을 위해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글·한국어·한국역사 교육 지원'이 35.5%로 가장 많아 해외 동포들에게 있어 한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민원창구 개설(18.8%)', '사업 지원

(17.9%)', '정치참여 기회 확대(9.7%)', '법률서비스 지원(5.2%)', '한류 콘텐츠 지원(2.1%)' 등의 순이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외동포 포털 '코리아넷(korean.net)'의 이용정도에 대해 "이용 한다"는 비율이 27.6%인 반면(주1회 이상 10.8%, 월1회 이상 16.8%), "이용 안 한다"는 응답이 72.4%(거의 안함 39.3%, 전혀 안함 33.0%)에 달해, 재외동포 포털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이 넘는 응답자(53.9%)가 '국가 위상은 높지만 삶의 질은 낮은 중진국'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는 '국가위상과 삶의 질 모두 높은 선진국(26.8%)', '국가위상은 낮지만 삶의 질은 높은 중진국(14.5%)', '국가위상과 삶의 질 모두 낮은 후진국(4.8%)' 순으로 응답했다.

이어 국내 재 거주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거주할 생각이 있다'가 72.1%로 '거주할 생각이 없다(19.1%)'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많은 동포들이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와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62.8%가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문화 정착'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16.0%)',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문화와 복지확대(13.6%)', '경제성장과 시장 활성화(6.9%)' 순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교

민사회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된다'가 63.4%,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36.6%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응답이 61.9%로, '잘못한다'는 응답 38.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원혜영 의원은 "해외동포들이 여전히 고국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낙제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실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9월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온라인(E-Mail)으로 진행됐고, 분석은 여론조사전문기관 '우리리서치'에서 대행했다.

〈고영민 기자〉

리더스 다이제스트



박근혜 대통령, 한중FTA 타결

박근혜 대통령이 11월10일 인민대회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처럼 정부가 한중FTA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된다.



현경대 수석부위원장, 워싱턴서 특강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이 11월13일 미국 워싱턴 캐피털 힐튼에서 열리는 '한미 평화통일 포럼'에서 특강을 갖는다.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한미공조',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한 전략적 접근' 등이 논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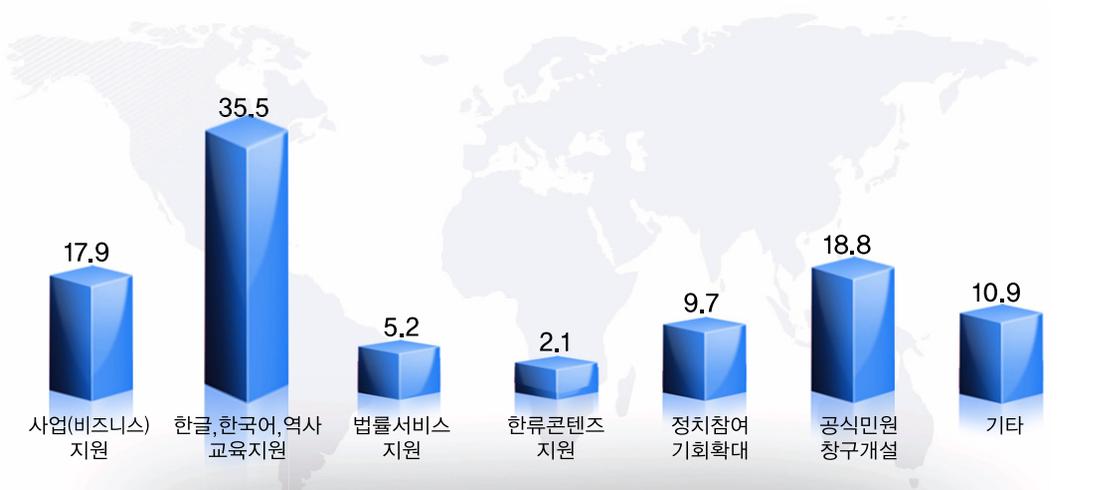
양창영 의원, 재외국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

양창영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이번 임명된 지역별 위원장은 △북미주 동·중부: 장윤석 △북미주 서부: 진영 △일본: 김태환 △중국: 조원진 △유럽: 나성린 △중남미: 김재경 △아중동·아시아: 김정훈 의원 등이다.



조규형 이사장, 고려인 문화체험 행사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러시아·CIS국가의 동포들을 초청해,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토록 하는 행사를 가졌다.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10월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과 용인, 천안에서 열렸다.



미주총연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 접수

131명 명의로 총연에 제출... 김재권 전 이사장 출마자격 논의가 목적



미주총연 임시총회 소집요청서가 접수돼 연내 개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재권(사진) 미주총연 전 이사장은 "메릴랜드한인회장을 지낸 박성길 황정순회장이 11월3일 오후 워싱턴DC의 미주총연 사무실을 방문해 김옥

순행정실장한테 임시총회 소집 요청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본지와의 연락에서 "박성길 황정순 회장이 미주총연 사무실에서 4시간을 기다린 끝에 오후 6시에 겨우 접수시켰다"면서 김옥순 행정실장이 접수증에 서명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카톡으로 전송해왔다. 김재권 전 이사장은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보내온 사람은 모두 197명이지만, 공증을 첨부하지 않은 사람 등을 제외한 131명의 요구서를 미주총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석찬 전 회장을 통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정순 총회장 앞으로도 또 다른 사본을

접수시켰다"면서 "차기총회장 선거의 입후보 자격을 다루기 위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주총연은 선거는 내년 5월이며, 새 회장의 임기는 7월부터 시작된다.

미주총연 일각에서 임시총회 소집 요구 움직임이 일어난 것은 김재권 전 이사장의 차기 회장 선거 출마 자격 여부를 확인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권 전 이사장은 2001년 시카고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유진철 후보와 경선해 승리했으나 부정선거 논란 끝에 미국 법원으로부터 회장직을 유진철회장한테 넘겨줄 것을 판결 받았다.

〈이석호 기자〉

KOREAN  NET 코리안넷은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온라인 재외동포 전문 포털] 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은 재외동포 지식인재를 기다립니다.



정부부처 공동활용을
위한 인력풀
재외동포 우수 인재 추천 등



국가 주요 정책
자문 활용



동포 정책 수립 등
기초 자료 활용

코리안넷(www.korean.net) 회원가입을 통해 재외동포 지식인재에 지금 등록하세요.

월드코리안리더스



엄넬리 모스크바 한민족학교 교장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국적을 받았다. 법무부는 “한국 국익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귀화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을 취득한 특별공로자 2명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장일 필리핀 한인 총연합회장이 한인 사회 안전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카티에 위치한 마닐라새생명교회 문화홀에서 음악회를 개최했다. 필리핀한국국제학교 오케스트라와 새생명오케스트라, 마닐라여성합창단이 무대에 오른 이날 공연에는 1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했다.



이말재 카타르 한인 회장이 10월 29일 ‘태극기의날 제정 국민운동본부’ 카타르 현판식을 가졌다. 이말재 회장은 지난 10월 국민운동본부 카타르 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 현재 국민운동본부 해외 지역별 추진위원장으로 위촉된 동포는 총 12명이다.



김정욱 캄보디아 사랑의등불 총재가 10월 26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열린 홍익인간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다. 홍익인간의 정신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이날 행사에는 기독교인, 불교인, 천주교인 등 1천여명이 참가했다.



송창근 인도네시아 KMK글로벌스포츠 그룹 회장이 11월 4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2014 세계 한인차세대대회’ 개최식에서 ‘Human Touch Management’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현재 송 회장은 2만여 명의 직원에 약 2억5천만 달러의 연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권유현 재중국대한체육회장이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장으로 추대됐다. 총연합회는 “11월 1일 전국체전이 열린 제주에서 총연합회 회의”를 열고 권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심양한국인회장, 중국한국상회 수석부회장, 동북3성한국인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내 중소기업과 세계로 뻗어나가자”

세계한상지도자대회, 강릉서 성황리에 열려



“강원도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38선이 있는 위험한 곳이라고 알았는데, 두 번 만에 완전히 강원도에 정이 들어버렸어요.”

10월 23일 강원도 강릉에서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의 막이 올랐다. 또한 같은 날 저녁,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회장 한창우, 이하 세총)의 세계한상지도자대회가 진행됐다. 올해로 35회를 맞는 세계한상지도자대회는 한창우 회장이 작년과 올해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의 조직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덕분에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함께 들러볼 수 있도록 박람회 기간중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날 한창우 세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몽골, CIS국가들과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무역 및 물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두만강 유역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 전시회”라고 소개한 뒤, “이러한 사업에 세계한상지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 세계한상지도자대회를 겸해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글로벌 한상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를 모색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가 되자”고 강조했다.

김덕룡 세총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처음 세총을 만들 때 해외에 나가있는 750만 동포와 한반도의 7천만 동포들을 네트워킹해 21세기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한민족 시대를 만들자는 포부

로 출범했다”며 “오늘, 그때를 다시 다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해외동포가 고국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첫 번째 케이스”라는 영종도 드림아일랜드와 세계한민족센터 사업을 소개하면서 “우리 동포들이 모국에 직접 투자하고, 함께 참여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을 만드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실제로 기업의 형태를 갖춘 곳은 없고 거의 구멍가게 수준이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외수출이라는 것을 해본 경험이 없는 지역이었다. 한상지도자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강원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세총에서 추진한 사업에 관한 보고가 이어졌다. 먼저 영종도의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 사업에 대해 오진석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대표는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 이번 주까지 정부 45군데에 사업계획서를 보내고, 내년 가을 대규모 공사에 앞서 주민들의 안전관리와 사업관리에 관한 선공사를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주식회사 한상에서는 “국내 우수한 중소, 중견기업을 발굴해 포괄적인 해외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한상총연 네트워크를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하며, 차세대 한인상공인을 발굴하여 한상총연과 동반성장하는 모델을 만

들어가는 것이 첫 목표”라면서 격려를 부탁했다.

세계한인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와 협의되고 있는 삼성동 일대의 부지를 포함해 서울 시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며, 서울시의 땅에 한상의 힘으로 건립자금을 모으는 민간추진 방식이나 민간웨어방식,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업보고 후에는 권성순 성악가의 축하 공연과 만찬을 즐겼다. 만찬 중에는 이경재 부이사장이 “처음 세총을 발기할 때는 전세계에 흩어진 한인들이 정신적 유대라도 갖자는 점에 초점을 뒀는데 위대한 한민족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으로 세총이 발전하고 있다고 느꼈다. 드림아일랜드와 한인센터 등 우리의 모든 꿈이 이뤄질길 바란다”며 건배를 제의하기도 했다.

이날 한상지도자대회에는 한창우 회장을 비롯해 김동영 이사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공태 재일민단본부 단장, 이경재 전 방통위원장, 이재재 의원 등 내외빈을 비롯해 약 100여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다음날인 24일 오대산 월정사 등을 돌아보고 26일까지 열리는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전시장을 개별적으로 찾아보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호근 기자)





박기출 18대 월드옥타 회장

월드옥타 18대 집행부 공식출범

11월1일, KOTRA 인베스트 코리아 플라자서 열려

“반드시 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박기출 회장이 취임하면서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제18대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월드옥타는 11월1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위치한 KOTRA 인베스트 코리아 플라자에서 신규 회장 이취임식 및 제18대 집행부 출범식을 가졌다.

지난 10월1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박기출 전 수석부회장이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지 한 달 뒤에 18대 집행부 출범식이 열린 것.

“우선 내실을 다지고자 합니다.

월드옥타는 68개국 133개 지회에 6천여명의 정회원과 1만5천여명의 차세대회원을 보유한 한민족 최대 경제단체입니다.”

박기출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신임회장 선출 때도 “과거의 폐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선언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회장은 “월드옥타의 현주소

를 인식하고, 군살을 빼야 한다”며, “월드옥타 회원 숫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겉모습보다는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

“지난 33년의 긴 시간동안 우리가 모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국내에 월드옥타 활동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월드옥타의 본모

습을 알리는데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경률 전 국회의원, 김영환 국회의원, 신한섭 코트라 중소기업지원본부장, 월드옥타 이영현·서진형·김우재 명예회장, 조한철 전 이사장, 설용환·조롱제 상임이사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해 신임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한편 출범식에서 박 회장은 차

봉규 중국 이우지회 상임이사를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했다. 지난달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박병철 상임이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월드옥타는 상임집행위원인 부회장, 통상위원장, 특별위원장 등 집행부 인선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석호 기자)



“해외한인들에게 태극기 바람 일으키자!”

‘태극기의 날 제정 국민운동본부’, 아·중동총연 사무소서 현판식

전 세계 한인사회에 태극기 바람을 일으키고자 하는 태극기 전도사들이 한곳에 모여 ‘태극기의 날 제정 국민운동본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태극기 보급 활동에 돌입했다.

‘태극기의 날 제정 국민운동본부’ (이하 ‘태극기 국민운동본부’)가 10월22일 오후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회장 임도재) 서울 사무소에서 현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본지와 사단법인 한민족평화통일연대, 김성곤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현판식에서는 5명의 한인사회 리더들을 태극기 국민운동본부 지역 추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새로 위촉된 지역 추진위원장은 신현성 리비아한인회장, 박익성 전 잠비아한인회장, 채풍석 탄자니아한인회장, 박경희 KOWIN독일중부지회장, 전상호 시리아한인회장 등이다.

태극기 국민운동본부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위해 10월2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재외동포와 함께 하는 태극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며, 12명의 해외한인사회 인사들 태극기의 날 제정 지역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한 바 있다.

김성곤 의원은 고종의 명으로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3월6일을 태극기의 날로 제정하

고, 3월1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을 ‘태극기 주간’으로 정하자고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으로 태극기 국민운동본부는 해외동포사회에서 ‘태극기의 날’ (제정) 운동을 시작해 그 열기를 국내로 불러들일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에서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태극기의 날 제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태극기 국민운동본부 해외지역을 총괄하는 해외추진위원장으로 위촉된 임도재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해외 각지에서 생활하는 우리 차세대들이 태극기를 보며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길 바라는 심정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며, “특히, 모국과의 네트

워킹에 있어 태극기야말로 나라 사랑 및 민족애를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각 지역 한인사회 지도자들이 태극기 보급 활동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또, 임 회장은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을 통해 ‘태극기의 날’이 제정된다면, 우리의 활동은 역사에 남는 큰 보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활동을 보고한 정광일 새정치민주연합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은 “앞으로 여야가 다투지 않고 한목소리로 관련법을 통과해 태극기의 날을 제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재외동포들 입장에서 해외에서 보는 태극기는 아무래도 감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머지않은 장래에서 태극기의 날이 제정되면 그 중심에는 임도재 회장을 비롯해 해외 각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한 여러분들이 우뚝 서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도재 회장은 ‘2014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했던 이동우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 내년도 대회 공동의장이 이숙순 재중국한국인회 차기회장, 이경종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장 등도 해당 지역에서 태극기의 날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고영민 기자)



2014 국정감사서 제기된 재외동포정책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유기준)가 실시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재외동포정책 개선사항으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재외공관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사할린 및 고려인동포 지원 방안 등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서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10월27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국회 본관 401호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감사에서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은 "재외공관장을 중심으로 각 공관에서 사업계획을 구상함에 있어 관련기관(외교부·교육부·문체부 등) 간에 사업과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한글학교 교사와 교·자재 등이 부족하고, 시청각 등 관련시설이 낙후된 현실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담당기관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재외공관에서 자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소요일이 평균 3~7일 정도밖에 안된다"며 "인적네트워크 연결차원에서라도 미국처럼 3~6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인회관 매입비 지원과 관련해, "정부예산이 지원됨에도 소유권, 재산권 등에 대한 규정과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 같다"며, 외교부에 소상한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공공외교 차원에서 UN에서의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문화행사(영화제, 전시 등) 개최를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곤 의원은 사할린 동포들의 영구귀국 문제와 더불어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 유족들이 요청하는 피해보상 청구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재외국민보호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관련정책을 논하는 것은 재외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국민보호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윤병세 장관은 "재외국민보호법이 실효적으로 이행하려면 영사인력 인프라

정병국 의원 “재외공관 사업계획 종합시스템 마련해야”

“재외국민보호법, 이번엔 반드시 통과시키자” **김성곤 의원**



가 선제적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향후 재외국민보호법이 국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외교부도 적극 참여해 보다 현실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오 의원은 해외투자 주체, 해외에 진출한 법인들, 재외동포 등을 연결하는 '글로벌 코리아 경제문화 영토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TSAR(중동·아프리카연결철도)을 중

심으로 동북아평화번영공동체(NCPP)를 구현하는 것, 즉 한국의 경제와 문화영토를 넓히자는 차원에서 총39개국 68개 도시를 연결하는 '글로벌 코리아 경제문화 영토전략'을 제시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의원은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 대한 우리의 외교력이 일본에 밀리는 현실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중동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과거처럼 경제적 이익만 내세우기 보다는 포스트 오

일 시대를 대비해 외교적으로 더욱 깊이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병세 장관은 "포스트 오일 시대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자원뿐만 아니라 산업, 방산,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집단협의체를 통해 관계를 지속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원유철 의원은 에블라바이러스 예방대책 차원에서 위험지역 교민들에게 대한 안전조치 강구를, 김현 의원은 재외공관에 배치되는 경찰영사 인원의 부족에 따른 교민안전대책 마련과 고려인 지원 단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김영우 의원은 재외국민등록률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며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외교부의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날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해외동포사회 내 소외계층 지원, 한글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할린 및 고려인 동포 처우개선 등에 대한 지적과 제언을 적극 수용해 재외동포업무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영민 기자)

한국 건강보험 이용 재외동포 수 2배 꺾춤

한국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재외동포 수가 지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009년 국내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재외동포 수는 4만2천232명이었으나, 지난해는 9만4천849명이었다.

진료금액도 2009년 4천426만 달러에서 지난해 9천771만 달러로 늘었다. 숫자와 금액 모두 2배 이상 늘은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

를 받아 이같이 발표했다.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미국 동포들이 건강보험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분석해 봤을 때 중국이 4만4천566명, 미국이 3만5천

574명이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많은 동포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해 적은 금액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점을 우려해, 7월부터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O'acle 오라클 피부과의원

국내 36개 지점 70여명의 의료진이 정성을 다해 진료하며
효과적인 치료 노하우 공유로 피부과 체계화와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36개 지점

인천 검단점 032-566-4114 | 남양주 장현점 032-571-0575
 인천 구월점 032-434-5311 | 분당 서현점 031-707-4975
 부천 중동점 032-321-4370 | 수원 인계점 031-224-5727
 성남 종합시장점 031-745-5575 | 일산점 031-932-5757
 오산역점 031-374-0064

대전 둔산점 042-488-8975 | 대전 세이점 042-533-5575
 대전 테크노점 042-932-8275 | 공주 산성점 041-856-5575
 천안 신부점 041-569-3355 | 청주 북문로점 043-253-5559
 서산점 041-666-6600

오라클아름다운피부과의원 (전주점) 063-274-0000

경기지역

충청지역

전라지역

서울지역

압구정점 02-544-2777 | 강남점 02-535-8055
 강변점 02-343-2077 | 동대문점 02-2244-7575
 서울대입구점 02-871-8301 | 인천역점 02-416-2750
 송파오금점 02-431-6789 | 서초점 02-522-3939
 연신내점 02-352-2100 | 화곡역점 02-2605-1175
 신촌점 02-322-2009 | 대치점 02-501-4818
 노원점 02-930-1500 | 양재점 02-553-4700
 여의도점 02-761-1010

대구 죽전점 053-522-7791 | 대구 중앙점 053-426-5575
 부산 서면점 051-802-8759 | 창원 상남점 055-286-1006

O'acle 오라클 피부과의원

압구정점 02-544-2777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30m KT 뒷편
 미승빌딩 4층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창립50주년 기념식 연다



홍채식 재일한국상공회의소 회장

11월27일, 도쿄 '호텔 오쿠라' 에서... '한상련 50년사' 발간 계획

재일동포 상공인의 상호협력과 경제기반 강화에 매진해 온 재일한국상공회의소(회장 홍채식, 이하 '한상련')가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11월27일 오후3시부터 도쿄의 오쿠라호텔 '平安の間'(東京都港区虎ノ門2-10-4)에서 개최한다.

한상련은 "본 회의소의 창립50주년 기념식은 본래 2년 전이었지만, 사단(社團)문제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연기해 왔다"며, "제52기 정기총회 및 제53기 제1회 이사회, 지난 9월 부산에서 열린 제53기 제2회 이사회에서 전국의 지방한상과 함께 11월27일에 기념식을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홍채식 회장은 "이번 행사에는 일본 내 17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500명의 회원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홍 회장은 이번 창립 50주년 행사와 함께 '한상련 50년사' 제작에도 들어가 내년 4월 총회 전까지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련은 창립 40주년 때도 '한상련 40년사'를 발간한 바 있다.

재일동포 경제인단체, 한상련은 지난 1962년 2월22일 '재일한국인상공회연합회'라는 명칭으로 결성됐다. 같은 해 5월1일 한국 정부로부터 유일한 재일 경제단체로 인정받고, 5월21일 제28회 민단 중앙 대회에서 산하 단체로 승인 받았다. 이어 1963년 12월15일, '재일한국인경제연합회'를 통합해 일원화했다.

1976년 7월, 민단 중앙회관 건립을 위해 '한상련 특별기금'을 조성해 큰 성과를 올렸다. 이외에도 모국 진출 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본국에 제일투자금융(주)를 설립했고(1977), 이후에 신한은

행·신한증권·신한생명보험으로 확대됐다.

80년대에 들어서는 재일한국인무역협회설립을 지원하고(1981), 재일한국청년상공인연합회를 산하단체로 정식인정(1984) 했다. 특히 88서울올림픽을 위해 일본 전국의 재일동포 상공인들이 나서 후원 핵심 멤버로 참여, 상당한 액수의 성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1992년 7월25일, '재일한국상공회의소'로 공식명칭을 변경했다. 1993년 대전 EXPO 조직위원회에 시설기증금 1억7,100만 원을 전달했고, 1994년 한국제품 구매 운동인 'I LOVE KOREAN'을 전개했다. 1997년에는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며, '재일한국인 회사 명감 1997'을 발간했다.

2000년대에 와서는 '재일본조선인상공회연합회'와의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2000.8), 재일한국인 단체로는 최초로 북한경제 시찰(2000.10)을 실시했다. 또한, 한일

월드컵을 위해 각지 한상 응원단을 조직(2002.6),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의정서 체결(2006.10) 등을 진행했다.

이외 다양한 분야에서 모국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재민을 위한 성금을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에 전달하는 등 국내외 동포사회 지원을

통해 재외한인사회 공동체 형성에 있어 막형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편, 이번 기념식(대회장 홍채식, 실행위원장 김광일 동경회장)에는 500여 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참석 등록 등 자세한 문의는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사무국(03-3456-1190, info@kansyo.org)으로 하면 된다.

(고영민 기자)

리더스 다이제스트



정의화 국회의장, 재일동포 간담회 가져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월26일 도쿄도내 호텔에서 재일동포 간담회를 가졌다. 이부키 분메이 중원 의장의 초대로 일본을 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경색된 한일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방문했다"고 밝혔다.



유흥수 주일대사, 아베 총리와 면담

유흥수 주일한국대사가 부임한 지 65일 만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다. 유 대사는 10월27일 도쿄도 총리 관저를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와 부임 인사를 겸해 약 10분간 면담했다. 한편 유 대사는 올해 8월21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같은 달 23일 일본에 부임했다.



오공태 단장, 세계한상지도자대회 참가

오공태 재일민단 단장이 10월23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세계한상지도자대회에 참가했다. 올해로 35회를 맞는 세계한상지도자대회는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기간 중에 열렸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조규형 재일동포재단 이사장 등 100여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왕청일 교토지방본부 단장, 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왕청일 재일민단 교토지방본부 단장이 최근 교토시 히가시야마구(東山區) 교토국제학원에서 '2014 교토 코리아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교토 본부는 2012년부터 재일동포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인들도 참가할 수 있는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약 3천명이 참가했다.



日 세토우치시 조선통신사 행렬

이성권 주교베총영사, 세토우치시장 등 200여명 참가

오카야마현 세토우치시 우시마도초에서 조선통신사 행렬 행사가 11월2일 개최됐다고 주교베총영사관이 전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우시마도 국제교류 웨스타(회

장 히로하타 치카코)가 주최한 것으로 약 200명이 조선통신사 행렬에 참가했다.

이성권 주교베 총영사는 정사(正使), 세토우치시 다케히사 시장은 번주(藩主), 츠무라 케이스

케 중의원은 통신사 수행원으로 행렬에 직접 참가해 우시마도 장소에서 과거 통신사들이 3차례 숙박한 적이 있는 유서 깊은 혼렌지까지 약 3Km를 두 시간에 걸쳐 행진했다.

혼렌지에서 이성권 총영사와 다케히사 세토우치시 시장은 양국의 친선강화를 희망하는 국서교환 세리모니를 진행했다.

(고영민 기자)



재일동포의 역사와 함께 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올드커머든 뉴커머든 모든 재외동포는 ‘하나’”



2014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21개국, 126명 참가

세계 각지의 한인차세대들이 생각하는 ‘한민족’ 또는 ‘한국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지역별, 거주 환경에 따라 정체성에 대한 시각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보였지만, 차세대 네트워킹을 통해 한국문화를 널리 전파하고 모국 발전에도 기여할 책임이 있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2014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열리고 있는 11월6일 오후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한인차세대들이 함께 모여 한인사회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리더스 토크’가 진행됐다. 리더스 토크에서 제기된 주요 담론은 한인차세대로서의 정체성, 성공과 실패 경험담, 미래 한인사회 공동체 비전 등이었다.

이날 ‘재외동포 1.5세의 자이니치 조직생활’이란 주제를 발표한 임유미씨는 좁은 의미의 ‘자이니치’와 ‘신규정주자’의 개념을 설명하며, “본질적으로는 자이니치

이든 신규정주자이든 관계없이 재외동포는 모두 ‘자이니치’이며 하나다”고 말했다. 국적, 거주 동기 및 기간 등의 개별적 조건을 초월해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은 모두 ‘한민족’이라는 것.

민단 중앙본부에서 15년 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청년회 동경본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임유미 씨는 그동안 차세대 육성사업인 어린이 여름캠프, 어린이 잼버리, 차세대 모국연수 등의 사업에 참여해왔다. 그는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닦고 나와 같은 1.5세 뿐만 아니라 신규정주자도 자이니치의 한 사람으로 편하게 참가할 수 있는 청년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어릴 적 미국에서 생활했고 현



재 미국국적을 갖고 있는 임유미 씨는 이날 발표에서 일본 현지에서 벌어진 헤이트스피치(혐한 발언) 영상을 차세대들에게 보여주며, “우리 아이들이 당당히 자이니치라고 말할 수 있는 재외동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조직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리더스 토크에서는 입양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정체성 고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생후 6개월 만에 미국에 입양됐으며, 뉴욕 헌터스쿨 사회복지학 석사를 거쳐 한국계 입양인 모임 ‘AKA(Also-Known-As)’, 아시안-아메리칸 아동가족연맹(CACF) 등에서 근무해 온 오선희씨는 “입양인 당사자의 정체성 찾기도 중요하지만 다른 피부색을 갖고 있는 부

모들의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다”고 말했다. 오선희 씨는 입양아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유형, 문화 사회화 전략 등을 분석했다.

영국 외무부 공무원을 거쳐 현재 재보안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최재호 씨는 웨일스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말하며, “오히려 내가 가장 한국적일 때 현지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말을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자극을 받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는 부연 설명도 이어졌다. 그는 “이번 차세대대회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refresh)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에서 패션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이한나 씨는

“현지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그들과 같아지면 차별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바뀌는 건 전혀 없었다”며,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들로부터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나씨는 “우리 후손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더 잘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거주국 현지인들에게 한국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우리 차세대들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해대학교 법학원 부교수이며, 부산대 사회급변현상연구소 객원연구원인 김성화씨는 ‘한중 양국의 경제교류와 중국 동포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를 발표하며 “한국과 중국의 지도부들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이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한인차세대가 아니라 ‘한민족’ 차세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온 강바실리(러시아 음스크과학센터 연구원) 씨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들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좋은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며, “모든 재외동포들은 자신의 형제들과 모국을 대표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지역의 한인 리더들이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모국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차세대들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함께 나눴다.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학사과정 학과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지관씨는 20살 때 뉴질랜드로 건너가 겪은 실패담을 얘기하며 “진정한 리더란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이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또한 “용기를 결코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11월4일 7일까지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17회째를 맞이한 올해 대회는 전 세계 21개국에서 126명(국내체류 차세대 18명 포함)의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들이 참석했다.

〈고영민 기자〉



“차기선거 추가투표소 늘릴 것”... 선관위 개정안 마련

오사카민단본부, 11월11일 재외국민선거 설명회

-영사관까지 가지 않고 민단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지난 선거 때 요코하마에서는 가나가와 민단본부에 투표소를 만들었어요. 영사관이 산꼭대기에 있어 가기 불편했거든요. 또 고베에서도 영사관은 주차가 불편해 인근 학교에 투표소를 만들었습니다. 투표소를 다른 곳에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추가투표소 하나를 만들어 이틀간 운영할 때마다 평균 3천만이 추가됩니다.”

-투표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로 돼 있는데, 오후 8~9시까지 늘려줄 수 없나요. 알바 학생이나 소외계층은 일하는 시간 중에 투표하러 가기 어렵거든요.

“재외국민의 해외 선거는 6일간 실시됩니다. 수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할 때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하는 방안이었어요. 이것이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11일 오사카민단본부 5층의 대회실에서 질의문답이 오갔다.

오사카민단본부가 개최한 재외국민선거제도 개선간담회에서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재우 행정사무관과 외교부 강성국 행정관이 재외국민 선거 제도개선에 대한 선관위와 외교부의 입장을 소개했다.

질의응답이 이뤄진 것은 그 직후였다.

이날 행사에는 오사카민단본부 정현권 단장과 박영철 상임부단장, 최보인 재관서한인연합회 이사장 등 오사카지역 민단과 한인회 인사 300여명이 참여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재외국민 선거의 불편을 해소하고, 투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8일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주재우 행정사무관은 개정안이 크게 5가지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권자 수 등을 감안해 공관이 아닌 곳에서도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투표할 때만 신분증을 확인하면 되도록 투표 등록신청을 간소화하고, 인터넷으로도 등록신청을 받고 대리등록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번 신고하면 다음 선거에도 신청이 유효하도록 하는 방안과 공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우편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선거 때 110개국 164개 공관에서 선거를 실시했으나 우리나라 공관이 설치돼 있지 않은 80개국에서는 투표를 실시하지 못했다면서 이 지역에서는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공정성 담보를 위해 우편투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외국민투표는 선거 30일전까지 선거인 명부작성을 마치고, 선거일 14일 전부터 9일전까지 6일간 선거를 치른다면, 일본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한국



정현권 오사카민단본부 단장

에 들어가서 투표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편투표는 선거일 당일 오후 6시 전에 도착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외국민 유권자수는 208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국회의원 12명을 내는 대구광역시보다 많은 수라면서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해 힘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오사카민단본부는 이날 간담회 후 초밥과 떡, 돼지고기 수육을 갖춘 다과회도 개최 친목을 다졌다.

〈오사카=이종환 기자〉



조수소 민단 가나가와현지방본부 문교부장

“차세대에게 제사 지내는 법 가르쳐요”

“차세대 재일동포들에게 제사, 차례 지내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해외동포들도 제사를 지낼까? 최소한 재일동포들은 제사와 차례를 지낸다는 게 조수소 재일민단 가나가와현지방본부 문교부장의 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애국이라고 생각해요. 대다수 재일동포들은 제사를 지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가나가와현지방본부가 차세대들에게 제사 지내는 법을 알려준다는 것일까?

11월5일,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열린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조수소씨를 만났다. 이번 차세대대회에는 세계 각국 120여명이 참가했다. 수소씨는 독특한 이름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고

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차세대 동포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몰라요. 뿌리 교육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재일동포 2세인 그는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 거주한다. 서강대학교에서 국제교육학을 배워서인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했다. 한국 강남에서 사업을 한 그는 가나가와지방본부의 요청으로 민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도 한국

사업체는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고급차를 수출하는 회사. 직원 20명을 두고 있다.

“민단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가나가와현 민단 청년회장으로도 일한 그는 역사·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요코하마에는 약 2만5천명의 재일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한일의원연맹,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10월25일 서울 롯데호텔서 합동총회

한일의원연맹(회장 서청원)과 일한의원연맹(회장 누카가 후쿠시로)이 “한일 양국이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의련은 10월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합동총회를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두 의련은 성명을 통해 “양국

이 자유,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하여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은 양국관계가 한층 발전하는 비약의 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일의원연맹은 일본 측이 1993년 코노담화, 1995년 무라야마담화, 2010년 칸 나오토 담화 등을 통해 표명한

역대 정관의 입장을 계승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 위에 양국 의련이 한일정상화담의 조기실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한 것.

양국 국회의원은 또 일본 내에서 일고 있는 헤이트스피치가 양국 우호증진과 재일한국인의 생존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 유의하고, 그러한 가두선전 및 데모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측은 일본 국회에서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신속히 성립되도록 일본 측의 각별한 협

력을 요청하고 일본 측은 법안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한층 더 노력할 것을 표명했다.

쌍방은 내년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양국 국민의 우호를 견고히 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양국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 분야에서의 기념사업을 추진·지원하기로 했다. ‘양국의 선린우호의 유대이자 역사적 상징’이 되고 있는 조선통신사에 대해 양국이 공동으로 세계유산 등록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민단신문〉

‘제95회 제주전국체육대회’ 해외동포부 경기, 일본 우승

금(14)·은(5)·동(5) 총 24개 메달 획득... 中, 총 18개 메달로 준우승



10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 7일간 “웅진 힘! 펼친 꿈! 탐라에서 미래로”라는 주제로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가 제주에서 개최한 ‘제95회 전국체육대회’의 ‘해외동포부’ 경기에서 재일동포선수단이 올해도 우승을 차지했다.

총 17개국의 해외동포 선수단들이 참가한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4개, 은메달과 동메달 각각 5개로 총 24메달을 획득한 재일 해외동포 선수단(단장 김병종)에 이어 재중 해외동포 선수단(단장 설명복)이 금메달 10개, 은메달과 동메달 각각 4씩 총 18

개 메달을 획득해 준우승을 거머쥐었다. 또, 호주(단장 박동구)가 3위를 차지했고 뉴질랜드, 홍콩, 괌, 캐나다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제주종합경기장 등 74개 경기장에서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해외동포부 등의 경기종별로 나눠 44개의 정식종목과 3개의 시범종목이 펼쳐졌고, 해외동포 1,500여명 등 총 3만 2,500여명의 선수와 임원 및 동호인들이 참가했다.

〈고영민 기자〉

11월3일 오후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95회 제주전국체육대회’ 폐회식에서 내년도 전국체전 개최지인 강원도의 김정삼 행정부지사(맨 왼쪽)가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가운데), 원희룡(맨 오른쪽) 제주지사와 함께 대회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제95회 전국체육대회 공식 사이트]

와다 하루끼 도쿄대 명예교수

‘제7회 동북아국제협력상’ 수상

11월7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시상식 열려

“지금 동북아시아가 무서울 정도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일기본조약 50주년을 어떻게 맞을지 걱정이 됩니다.”

와다 하루끼 동경대 명예교수가 동북아국제협력상을 받았다.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은 11월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동북아국제협력상 시상식을 갖고, 와다 하루끼 교수에게 7번째 동북아국제협력상 상패를 전달했다.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창립7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린 시상식에는 이승률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정경영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장, 홍은표 한반도통일경제연구소 소장, 김한기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장, 몽골대사를 역임한 권영순 재단 고문, 김극기 북악포럼 회장, 도재영 동북아평

화연대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와다 하루끼 교수는 1966년부터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로 재직하면서 러시아사 및 남북한 현대사를 연구한 인물. 1970년대부터 베트남전 반대운동, 한국 민주화운동과의 연대 등을 주도해 일본을 대표하는 행동하는 진보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다.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은 이념만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단체입니다. 저는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이라는 책을 발간한 한명의 학자에 불과합니다.” 와다 하루끼 교수는 수상 소감을 발표하면서, 자신에게 과분한 상이라고 겸손해 했다.

그는 2014년에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왼쪽에서 세 번째가 와다 하루끼 교수

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1990년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역할’, 1995년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과 한반도’라는 논문을 낸 그는 이 책을 통해 “동북아의 문제가 극복됨으로써, 오히려 동북아가 진정한 글로벌한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남북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6개국에서 안보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구상했습니다. 2003년 6자회담을 시작으로 그 끈이 조금씩 지상으로 왔지만, 지금 6

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 핵문제 등과 겹쳐 한일, 중일 상태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와다 하루끼 교수는 이날 수상소감을 발표하면서 동북아시아 문제를 풀기 위해 우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되면 한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고, 이는 미국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일본의 변화를 통해 북한의 태도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오사카 코리아타운 페스티벌 2014’ … 빗속에도 열기 후끈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쌀쌀한 날이었으나 이쿠노구의 미유키거리 상점가는 우산을 든 인파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갑자기 거리 한켠이 떠들썩해지더니 풍물이 울려 퍼졌다.

“...9월에 드는 액방이는 9월9일에 막고/ 시월에 드는 액방이는 암세고사로 다 막아낸다/ 어루액이야 어루액이야 어기여차 액이로구나...”

팽과리를 잡은 상쇠가 선창을 하자 다른 사람들이 뒷구절을 합창했다. 액막이 굿 풍물을 받은 집 주인도 흥에 겨워 덩실덩실 춤을 췄다. 제주한문화네트워크 풍물단이 가게들을 돌며 액막이와 함께 번영을 축원하는 ‘길놀이’ 공연을 가졌던 것.



코리아타운 상점가가 주최... 흥겨운 무대에 길놀이풍물도

상점가 한 켠에 있는 공원에서는 가설 무대가 설치돼 춤과 노래 공연이 이어졌다. 오사카조선제4초급학교의 어린이 무용단도 무대에 올랐다. 색동저고리에 붉은 색 짧은 치마를 한 어린이들이 경쾌한 음악에 맞춰 빠른 율동을 보이자, 객석에서는 박수와 함께 찬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근

기지역 예술콘서트에서 금상을 받은 ‘슬래잡기(오니상)’라는 제목의 공연이었다. 운동장 한켠에서는 작은 천막 안에서 조선통신사 사진 전시회도 열고 있었다.

11월9일 오사카 쓰루하시의 코리아타운에서 열린 ‘2014 이쿠노코리아페스티벌’의 장면들이다. “오래전부터 했어요. 해마다 축제를 열어왔어요.” ‘페스티벌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행사 스태프 조끼를 입은 한 사람이 애매한 투로 대답을 했다. 그가 입은 단체복에는 ‘이쿠노코리아공생페스티벌’이라고 적혀 있었다. 축제이름에 ‘공생’이라는 글씨를 덧붙인 조끼였다.

행사 주최는 쓰루하시 코리아타운의 세 상점가 연합. 미유키상점가와 미유키중앙상점가, 미유키동상점가진흥조합이 주최한 축제였다. 이들 세 상점가 대표를 맡은 유라 히데아키(由良英明)에 따르면 세 상점가가 연합해서 페스티벌을 치른 것은

2008년부터라고 한다. 재래시장이 쇠퇴하면서 미유키상점가도 흔들리기 시작하자 이를 막고 부흥의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1992년부터 세운 것이 ‘코리아타운 구상’이었다는 것.

거리에 초롱등도 내걸고 아치형 장식도 세우면서 코리아타운화 작업을 본격화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계속했다고 한다. 그 결과 이 축제는 지금 오사카의 명물축제로 자리잡았다. 코리아타운은 오사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한류붐에 힘입어 오사카의 관광명소로도 유명하다.

지금 모모다니로 불리는 이 지역은 한때 이카이노로 불린 곳으로, 오사카 재일동포 100년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다. “...거기선 다들 목청을 돋우고/ 지방사투리가 활개치고/ 밥사발에도 귀가 달렸지/ 엄청난 위장은 콧등에서 꼬리까지/ 심지어 발굽의 각질까지/ 내장, 곱창까지도 다 먹어 치우고/...한물간 시대가 유유자적 관습



고스란히 살아남아/ 되돌릴 수 없는 것일 수록 중히 여겨 한 주에 열흘은 즐줄이 제사...” 재일동포 시인 김시종은 자신의 시집에서 이렇게 이카이노를 묘사했다.

비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열기는 계속됐다. 자욱한 연기를 피우며 고기를 굽는 집에는 고객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축제를 맞아 할인세일에 들어간 김치반찬가게들도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이 행사를 기획 준비하는 데는 오사카에서 활동하는 ‘코리아NGO센터’가 해마다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사카=이종환 기자)



왜 이렇게 맛있는거야?
한우니까!

한우는 고기의 맛과 영양을 좌우하는
올레인산이 많아 육질이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합니다.
지글지글~ 한우가 익어가는 맛있는 소리 들리세요?
우리 가족 식탁엔 맛과 영양이 풍부한 **한우**입니다!



“인종차별 철폐조약의 이행을”

헤이트 스피치 반대 호소... 2천800명 도쿄 도심 데모 행진

헤이트 스피치 반대와 차별철폐를 호소하는 ‘도쿄 대행진 2014’이 11월2일 일본 도쿄 신주쿠구내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를 상회하는 2천800명(주최자 발표)의 참가자가 모였다. 참의원 코이케 아키라(小池晃)씨와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씨도 행진에 참가했다. 올해의 테마는 ‘차별없는 세계를, 아이들에게’.

주최 단체인 ‘TOKYO NO HATE’는 “앞으로의 미래를 짊

어질 존재인 아이들을 차별받는 쪽으로도 하는 쪽으로도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취지에 찬동한 참가자 중에는 유모차를 밀고 온 젊은 주부나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남성의 모습도 보였다.

12시30분이 지나 “가자!”라는 구호와 함께 4구역으로 나뉘어 출발했다. 제1구역은 주최단체인 ‘TOKYO NO HATE’가 운영했다. ‘일본정부에 대해 인종차별 철폐조약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며 맨 뒤에서는 취주약대가 미국 프로테스트송의 대표곡 ‘승리를 우리에게’를 연주했다. 제2구역에서는 ‘차별반대 도쿄 액션’의 이시노 마사유키(石野雅之) 대표가 트랜스메가폰을 들고 선두를 걸으며 인종차별 철폐조약을 이행하고, 도 조레로 헤이트 스피치의 대책을 실시할 것을 호소했다. 한복을 입은 여성과 장고를 들고 참가한 재일동포의 모습도 보였다.

제3, 4구역에서는 선두의 사운



드카에서 대음량의 음악이 흘러나왔다. 참가자는 스텝을 밟으면서 ‘NO 헤이트!’를 계속해서 외쳤다. 신주쿠(新宿)중앙공원을 출발한 일행은 신주쿠역을 반시계 방향으로 일주하면서 집합지

점으로 돌아왔다. 해산 후, 트위터 상에는 바로 ‘멋진 피날레!’, ‘대성공’ 등의 문구를 볼 수 있었다.

〈민단신문〉

재외국민2세 한국거주 요건 90일로 완화

11월10일부터 시행... 국민권익위·김성곤 의원 요청 받아들여

재외국민2세 국외거주 요건이 60일에서 90일로 완화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재외국민2세가 한국에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병역법 시행령이 11월4일 일부 개정됐고, 11월1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재외국민2세로 인정된 해외동포는 한국에서 1년에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외국민2세 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여덟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17세까지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류 및 국내 영리활동에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재 재외국민 2세 대상자는 총 1만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약 90% 이상이 재일

동포 자녀들이다. 따라서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일동포 2세들의 국내 체류가 보다 자

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병무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8월1일

병무청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외국민 2세에 대한 국외거주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1년의 기간 중 6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할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부규정을 신설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민주당 김성곤 국회의원도 재외국민2세 제도 운영을 개선해 달라고 지난해 재외공관(주일대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 국경감사에서 요청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정부의 여부와 두루미식 재외국민 2세제도 운용으로 그 대상자의 대다수인 재일동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석호 기자〉

정현권 오사카민단 단장, “제8회 문화마당 열어요”

12월14일 국제교류센터에서... 1천여명 참여 예정

오사카 기타(北)구 나카자키(中崎)에 있는 오사카민단지방본부 건물에는 다양한 동포단체들이 입주해있다. 현관이 있는 1층에는 오사카한국청년상공회의소가 입주해 있고, 2층에는 민단 사무실과 중역실, 민단보협센터, 모국방문추진위원회 등이 사무실을 두고 있다. 3층에는 청년회 학생회 체육회 재일장학회와 한국교육원이 있으며, 4층에는 오사카한국문화원이 입주해있다. 5층은 대회의실.

정현권 오사카민단지방본부 단장을 만난 것은 11월 11일 5



층 대회의실에서였다. 오사카민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재외국민선거제도 개선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앙선거위가 행

정사무관을 파견, 지난 10월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제도 개선안을 오사카민단을 중심으로 한 한인사회에 소개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최보인 재관서한인연합회 이사장과 함께 이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 직후 열린 다과회에서 정현권 오사카지방본부 단장과 대화를 나눴다. “일요일인 12월14일, 오사카국제교류센터에서 문화마당이 열립니다. 해마다 1천여명이 참여해왔는데, 올해로 제8회째입니다.”

이 행사에는 음악과 무용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는 게 정 단장의 소개. 오사카에 있는 민족학교인 건국학교와 금강학교의 학생들도 참여해 공연한다고 했다. 오사카민단이 개최하는 3.1절과 8.15 경축행사에 각기 500여명이 참여하는데 비해 더 규모가 큰 행사라고 정

단장은 소개했다. “오사카에는 재일동포 14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민단 단계가 11만명, 조총련계가 3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정 단장은 오사카에서 1세대동포는 85세를 넘은 분들로, 민단도 모두 2세나 3세로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그 자신도 1943년 한국에서 태어나 소학교 때 일본으로 건너온 사실상 2세라는 것. 제44대 오사카민단지방본부 단장을 맡고 있는 그는 내년 3월 3년의 단장임기를 마친다고 소개했다.

“내년 1월 첫 토요일 오사카민단신년회를 개최합니다. 오사카지역의 일본 국회의원들과 지자체 의원 등 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매년 500여명 참여하는 큰 신년하례회입니다.” 그는 오사카지방본부 산하에 31개 지부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사카=이종환 기자〉

교토 도시샤대학의 윤동주 정지용 시비



교정 양지바른 곳의 두 화강암 시비가 방문객 맞아



윤동주 시비



정지용 시비

오사카에 갔다가 교토의 도시샤(同志社)대학을 찾기로 한 것은 비행기 속에서 읽은 책 '교토에서 본 한일통사' (효형출판사) 때문이었다.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정재정교수가 쓴 이 책에는 일제 식민지시대 교토의 한인사회와 함께 유학생들의 모습도 그려져 있었다. 특히 기독교 건축이념을 가진 교토의 도시샤대학에서 정지용 윤동주 김말봉 등 문인들이 많이 나왔다면, 교정에 정지용과 윤동주 시인의 시비도 서 있다고 소개했던 것이다.

오사카에서 교토까지는 기차로 불과 한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JR교토역에 닿아 지하철 카라스마선으로 바꿔타고 이마데가와역에 내리자 바로 도시샤대학 담이 나왔다. 대학 맞은 편으로는

과거 일본천황의 거소였던 고쇼(御所)가 나무 우거진 공원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도시샤대학 교정에 들어서서 지나가던 경비원한테 '한국 시인의 시비가 있는 곳이 어디냐?' 물으니 친절히 방향을 알려줬다. 시비는 명덕관에서 영정관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시인 윤동주가 1941년 쓴 시가 시비에 새겨져 있었다.

윤동주 시인은 1943년 7월 일본 경찰에 체포돼 광복 직전인 1945년 2월 후쿠오카 감옥소에



도시샤대학 입구

서 의사사한다. 그의 시비는 동지사학우회 코리아클럽과 윤동주를 기리는 모임에서 세웠다. 시인이 영면한 50주기를 맞아 도시샤대학 교정에 세웠다는 것이다. 시비 앞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꽃과 함께 방명록을 담은

플라스틱 박스가 놓여있었다. 박스 속의 방명록을 들춰자 시비를 찾은 이들의 소회와 감상이 빼곡히 적혀있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겠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최근 방문한 사람들이 남긴 글이었다.

윤동주 시비에서 불과 5미터 떨어진 곳에 정지용 시비도 서 있었다. '압천 십리별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날이 날마다 임보 내기 목이 잠겼다. 여울 물소리/ 찬 모래알 쥐여짜는 찬 사람의 마음/ 쥐여짜라 바시어라 시언치도 앓아라/ 역구풀 옥어진 보금 자리 뜰땀이 흠어면 울음 울고/ 제비 한 쌍 떼다 비맛이 춤을 추어...' 정지용의 시 압천이었다. 윤동주 시인이 생전에 걸작이라고 평한 시였다. 압천(鴨川)은 교토의 도시샤대학 인근을 흐르는 내로, 시인은 이곳을 거닐며 애수에 잠겼으리라.

정지용 시비 앞의 방명록에도 많은 글들이 남겨져 있었다. "오늘이 마침 개천절이네요. 여러 마음이 어지러이 오가는 날입니다. 일본에 와서 한국을 느끼고 갑니다." "우연히 도시샤 대학에 왔는데, 안 왔더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진짜 울컥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정지용의 시비는 2005년 건립됐다. 윤동주 시인이 도시샤를 한 학기를 다닌 것에 비해 정지용 시인은 무려 12학기를 다녔다고 한다. 가모가와로 불리는 압천과 히에이잔 산록, 가와라마치의 변화가를 거닐면서 식민지에서 온 젊은 시인들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노래하고,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 하고 고향과 조국을 그리워했으리라. 이 두 시인은 이제 도시샤 대학의 양지바른 교정에서 화강암 시비로 서서 방문객들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고 있었다.

(교토=이종환 기자)



내년초 큐슈국립박물관서 '칠지도(七支刀)' 공개

내년 1월1일부터 3월1일까지 큐슈국립박물관 3층에서 주후쿠오카총영사관(총영사 박진웅)이 후원하는 '고대 일본과 백제의 교류' 특별전이 개최된다. 총영사관은 "이번 특별전에서는 백제의 기술로 만들어



진 미즈키(水城), 오노조(大野城), 키이성(基肄城) 축조 1350주년을 맞아 백제로부터 전래된 '국보 칠지도(七支刀)'가 큐슈에서 처음으로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큐슈국립박물관·후쿠오카현, 서일본신문사, TVQ큐슈방송 등이 주최하며, 칠지도(七支刀) 전시는 1월15일부터 2월15일까지다.(문의: 큐슈국립박물관, <http://www.kyuhaku.jp>, 050-5542-8600)

오사카 K-시네마 위크 '숨바꼭질' 예매권 동나

주오사카한국문화원이 'K-CINEMA WEEK 2014 in OSAKA' 기간 중 상영되는 '숨바꼭질'의 예매권 판매가 마감됐다고 알렸다.

문화원은 "총 10회 상영 중 11월9일 2시에 상영되는 '숨바꼭질' (나렛치시어터)은 예매권 판매 수가 상영관 정원에 달해 부득이 당일권 발매가 중지됐다"면서 당일권 구매를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문화원은 이어 "'숨바꼭질'은 11월16일에 시네마트 신사

이바시에서도 상영되며, 해당 티켓은 현재 판매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일한국문화원, 이창섭 시물놀이 공연



주일한국문화원이 일본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아티스트를 초청해 공연을 연다.

히로시마 출신의 이창섭씨는 명인 이광수의 사사를 받았으며, 한국 국내 100회 이상, 국회 10회 이상의 공연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01년

도쿄로 거점을 옮긴 뒤 일본 아사히, NHK 등 방송에 출연한 바 있으며,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의 OST에도 참가했다.

이창섭씨의 공연은 12월5일 오후 7시부터 주일한국문화원 한마당 홀에서 펼쳐진다. 신청은 11월19일까지.

홈페이지 www.kokusaiexpress.com

KOKUSAI EXPRESS

海外引越・国際宅配便は国際へ



0120-535-220



□ 항공택배편 □ 해상택배편(한국행 ECONOMY SERVICE)



DHL, FEDEX, EMS より
60%安い!



宅配便

항공편(EXPRESS SERVICE)과 선편(ECONOMY SERVICE)

- **상업서류, 소화물 서비스**
- 전화에서 방문접수, 통관, 도착지배송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체국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의 품질은 한단계 높였습니다.
- **중량화물 서비스**
- **해외공연 전시물품 운송 서비스**



항공편 우체국과의 가격비교표 ※박스 무료 제공

	所用時間	価格	重さ
〒日本郵便 国際小包	3주~4주	¥11,300	20kg(미만)
항공택배	3~5일	¥9,000	20kg(미만)

* BOX SIZE : 横(43cm)×縦(55cm)×高さ(43cm)

추가할인 서비스

- 5박스 이상 보내시면 **15%할인**
- 10박스 이상 보내시면 **30% 추가 할인**



海外引越・国内引越

- **해외이사 화물 서비스**
- 유학 및 주재원 등으로 일본에 체류하면서 한국으로 이사화물을 보내실 경우 신속하고 저렴하게 운송해 드립니다.

自動車運送 輸出入通関

- **자동차 운송 통관 서비스**
- 일본에서 구입한 자동차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안심 서비스편

- **믿음과 신뢰의 국제익스프레스(국제택배)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면허(라이센스)업체의 유사한 화물영업서비스에 주의해 주세요.

※**접수 및 배송 절차** 전화예약 → 방문접수 → 한국배송



해외이사는

株式
会社

国際 EXPRESS

日本 (03) 5776-1191
韓国 (02) 3143-5555

お取り扱い業務：通関業・倉庫業・運送業・海外引越・海上 航空輸出入業
東京物流センター：東京都大田区東海5-1-1 横浜物流センター：横浜市中区山下町279-1 大阪物流センター：大阪府大阪市住之江区南港北2-3-37

헤이트 스피치를 생각하는 효고의 모임, 11월1일 코베국제회관서

청년회 효고본부 주관... “헤이트 스피치 허용할 수 없다” 확인

민단 효고본부(단장 차득룡)가 11월1일 코베시 츄오구(神戸市中央區) 소재의 코베국제회관에서 ‘헤이트 스피치 문제를 생각하는 효고의 모임’을 개최한 결과, 회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의 활동에 기대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뜻을 강하게 한 이 본부에서는 향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시민의 목소리를 집약하면서 반헤이트 스피치의 목소리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 날의 모임은 헤이트 스피치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 말하자면 민단측으로부터의 문제 제기였다. 청년회 효고 본부가 주관. 동포와 시민 130명이 참가했다.

모두 인사에서 차 단장은 “헤이트 스피치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빈으로서 참석한 하라 키치조(原吉三) 현의(자민당)와 요시다 켄지(吉田謙治) 코베시의(공명당)도 동조하며 “한심하다. 일본인의 책임으로 이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말했다.



제1부는 유식자 6명에 의한 기초보고. 참가자들은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변호사, 저널리스트, 반차별의 선두에 선 재일동포 당사자들로 다채로웠다. 각자가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생각을 간략하게 말했다.

공명당의 나카노 히로마사(中野洋昌) 중의원 의원(효고 8구)은 8월에 자민당, 9월에는 공명당에서 ‘헤이트 스피치 대책 프

젝트팀’이 발족했다고 보고했다. “당내에서는 각국의 법 규제 상황을 검토하고 논점 정리를 서두르고 있는 점. 조속히 결론을 내서 정부에 제의해 나가겠다. 헤이트 스피치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부는 좌담식 토론회. 토의에 앞서 회장에서 패널리스트에 대한 질문과 의견이

회수됐다. 토론회의 진행역으로서 모든 것을 훑어 본 민단 효고 본부의 김상영(金相英) 사무국장의 말에 따르면, 서면으로 의견을 보낸 80%가 “국회에서 조속히 단속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라”고 나카노 의원에게 기대하는 내용이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속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논의가 집중됐다. 단, “리버럴, 인권파라 불리는 변호사일수록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뒤틀린 현상이 있다”라고 알려진 만큼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논의 결과, 국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차별금지법을 요망해 나가는 한편, “자치체에도 차별 선동단체에 공공의 회관을 사용하게 하지 않는다, 도로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등의 제안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치했다.

이날의 모임을 끝마치고 김 사무국장은 “오늘은 첫걸음. 앞으로도 코베에서 다양한 형태로 문제 제기의 목소리를 발신해 나가겠다”며 의욕을 새로이 했다.

(민단신문)



인터뷰

고영관 오사카한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원 위해 공장견학과 강연회 만듭니다”

11월에는 엑시디 견학... 내년 2월에는 서일본NTT사장 초청 강연회



“오는 11월24일 엑시디(EXEDY) 공장을 견학합니다. 100명의 회원들이 버스 두대를 나눠타고 견학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사카한국

상공의소 고영관회장의 소개다. 그는 11월 11일 오사카민단이 민단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재외 국민선거제도 개선간담회에 참석했다가 기자를 만났다.

“오사카한국상공회의소 회원들을 위해 매년 공장견학을 추진합니다. EXEDY는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유명 회사입니다. 회원들에게 도움과 함께 여러가지 자극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년 2월에는 서일본NTT사장을 초청해 강연회를 갖는다고 한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연회를 갖자고 서일본NTT 사장을 만나 다짐을 받았습니다.” 서일본NTT 사장 같은 인물도 쉽게 초청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게 그의 설명. 회원들의 소질 향상은 물론, 비즈니스를 위한 교류 차원에서 이같은 강연회를 종종 개최한다는 것이다.



1953년 5월에 설립된 오사카한국상공회의소는 지난해 60주년 행사를 성대히 치렀다. 초대 하갑조 회장, 2대 및 4대 정천의 회장, 3대 및 5대 서갑호 회장 등을 그쳤다. 현재의 고영관회장은 2010년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해 26대 회장으로 연임하고 있다. 박소병회장은 21대, 김삼우회장은 23대와 24대 회장을 맡았다.

식 행사에도 참여해 격려했다. 그는 “자신은 30세 때 부친의 회사를 이어받았다”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면서 “재일한인사회의 단합을 위해서도 서로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오사카한국상공회의소는 오사카민단건물이 아닌 주오(中央)구 신사이바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언론인을 지낸 장철남씨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오사카=이종환 기자)

유흥수 주일대사, 동경 클린활동 참여

유흥수 주일한국대사가 동경 신오쿠보 거리미화 운동인 ‘클린 활동’에 참여했다.

재일본한국인연합회(회장 이옥순)는 매달 2째 주에 동경 한인타운이 있는 신오쿠보에서 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유 대사도 동참한 것이다.

현장의 사진을 전한 스포츠서울 재팬에 따르면, 유흥수 대사, 이옥순 재일본한국인연합회장을

비롯해 CJ재팬의 종업원, 동경한국학교 학생, 한인회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신오쿠보 거리와 쇼쿠안 거리를 청소했다.

한편 유 대사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일본 교토에서 생활한 지 일과다. 그는 1988년부터 1년간 일본 교토대에서 일본학을 배우기도 했다.

(이석호 기자)





“침묵의 병” 뇌졸중! 치매!

뒤늦은 치료보다 **예방적 차원**의 **조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뇌종합검진, 50대엔 시작하세요~

뇌가 보내는 위험신호!

- ✓ 심하진 않지만 은근히 반복되는 **두통**
- ✓ 간헐적인 주변 사물이 흐릿 또는 **어지럼증**
- ✓ 반복해서 들은 말인데도 자꾸 잊어버리거나 본인이 한말이 **기억이 잘 안날 때**
- ✓ 걸을 때 가끔 균형이 안맞고 **한쪽으로 기우는 듯한 느낌**

뇌종합검진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받아 본적 있으시죠? 그런데 혹시 뇌검진도 받아보셨나요? 일반적으로 ‘뇌’는 뇌졸중이나 치매 등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나 검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뇌혈관 질환들의 대부분은 발병이 되면 치료가 힘들 뿐더러, 치료가 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재되어 있다가 갑자기 발병하기 때문에 “침묵의 병”이라고도 불리는 뇌혈관질환! 뒤늦은 치료보다 예방적 차원의 조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더라도 평소 조기검진을 통해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뇌출혈, 뇌경색은 발병하기 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두통? 특히 두통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으로 보통 과로나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두통약등으로 쉽게 호전되는 경우도 많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3개월이상 지속되거나 특히 업무가 끝난 밤에도 반복된다면 단순 두통이 아니라 무언가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성 두통이나 단순 편두통으로 간단히 약만 먹으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뇌출혈이나 뇌경색처럼 생명이 오고가는 심각한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양상의 두통이 갑자기 시작되었거나, 50세 이후에 갑자기 두통이 시작되었을 때, 두통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밀한 원인을 찾기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지럼증? 어지럼증 역시 두통 못지 않게 흔한 증상입니다. 흔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급격히 자세를 바꿀 때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증상 역시 일상생활 중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빈혈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어지럼증이 빈혈과 함께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과 달리 빈혈에 의한 어지럼증은 드뭅니다. 대개는 말초성 어지럼증이 많고, 때로는 중추성 어지럼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귀 안쪽에 이석이나 염증이 발생하여 생기는 말초성 어지럼증은 그나마 덜 위험하지만, 소뇌의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해 발생하는 중추성 어지럼증은 치료시기를 놓치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어지럼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낄 정도라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정밀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뇌종합검진 받아보세요!!

대한민국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50대 이후의 장년층에서 각종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나 두통, 어지럼증, 안면마비,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있는 50대 이후의 성인에게는 뇌졸중 발병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뇌졸중은 10여년간 우리나라 단일질환 사망원인 1위(2011년도 기준)를 차지하며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환자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스트레스, 과체중, 운동부족 등의 위험요인이 되는 생활습관을 교정해서 혈관건강을 지키고, 평소 증상이 없더라도 뇌혈관의 상태를 조기진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40대부터, 늦어도 50대부터는 뇌검진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0세부터 시작하는 뇌종합검진! 앞으로 다가올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한 50년을 위해 뇌혈관 조기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뇌종합검진은 이렇게!!

최근 의학은 점점 더 예방의학적 치료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일단 한번 발병하면 치명적인 육체적, 경제적 손상을 입히며, 회복되기도 쉽지 않은 질병으로 반드시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뇌’와 ‘심장’입니다. 심장은 검사하기도 쉽고 고혈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므로 늘 우리 곁에 익숙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뇌는 의외로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일반 종합검진에도 뇌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뇌검진은 뇌종양 등 뇌자체의 병변을 진단하는 뇌 MRI, 뇌혈관의 막힘유무를 검사하는 뇌혈관 MRA, 심장과 뇌 사이의 동맥색이나 협착을 검사하는 경동맥 MRA, 급성 뇌경색이나 막혀가는 혈관을 검사하는 Diffusion MRI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참포도나무병원의 뇌신경클리닉에서는 진단의 정밀성을 위한 고해상도 MRI, 뇌졸중 위험도를 미리 검진 할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 뇌혈류와 관련된 기본 혈액 검사 등을 통해 뇌졸중, 치매 등의 발병가능성 예측은 물론, 그 전단계일지 모를 두통과 어지럼증의 원인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검사를 당일 검사하여 당일 결과 면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진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치료 및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선형요인을 발견하여, 이를 교정해주는 의학적 근거 중심의 뇌혈관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포도나무병원

| 양재역 8번출구 /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7
| www.champondonamu.com

문의·및·예약
1588-0831

박관용 전 국회의장

“소녀상 건립운동, 한일관계에 도움 안돼”

“이제 과거는 물어야”... 미주총연 차세대 컨퍼런스에서 밝혀

“오늘 글렌데일의 소녀상을 참관하고는 느낀 점이 있어 일부러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글렌데일에서 오렌지카운티로 돌아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얘기를 시작했다.

박의장은 미주총연(회장 이정순)이 개최한 ‘2014 차세대리더십 컨퍼런스 및 한인회장 워크숍’에 참석했다가 행사 참여자들과 함께 글렌데일의 소녀상을 참관했다. 그후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동북아정세에 대해

소개를 하겠다”면서 글렌데일 소녀상을 본 소회를 소개했다.

그는 소녀상은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뿐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정세와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

그는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것은 중국의 급부상 때문이라면서, 중국의 실력이 커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태평양 진출입 관문을 확보하려는 중

국과 이를 가로막고 있는 미일동맹 사이의 알력이 동북아지역의 군비증강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박 전 의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가운데서 매우 곤혹스런 입장에 처해있으나,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는 것. “한일관계 개선도 이런 맥락에서 중요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에 독도를 방문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함께 살고 있는 부인을 바깥에 대고 내 부인이라고 함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정계에 지인이 많은 유흥수대사를 주일대사로 파견했다면서, 이는 관계를 개선하는 시그널이라고 소개했다.

박관용 전 의장은 “글렌데일의 소녀상은 반일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일본내의 반감도 엄청나다”면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고 호소했다. 그는 또 “광복 70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과거의 아픔도 묻을 때가 됐다”면서 미

주지역에서 소녀상 건립운동이 퍼져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에서는 지난 1년전 LA 인근의 글렌데일에 소녀상이 들어선 이래 교민사회에서 소녀상 건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소녀상과 기림비 등이 8개소 이상의 장소에 건립됐다. 글렌데일 소녀상 건립후 일본의 극우단체에서는 이를 철거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건립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미주 곳곳에서 한국과 일본계 주민간에 갈등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LA 인근의 플러튼에서도 소녀상 건립을 둘러싸고 일본계 주민이 반대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이종환 기자〉



미주총연 차세대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글렌데일 소녀상을 방문했다.

민단 각 지방본부, 가을 축제 ‘풍성’

한일 문화교류 증진... 사이타마, 오카야마, 효고, 사가, 니시도쿄 등지서



▲민단 사이타마본부가 주최한 지부 대항 율놀이대회(사진 왼쪽), 민단 사가본부가 주최한 만남교류마당

재일민단 각 지방본부가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10월 말에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오카야마 본부는 코리안 페스티벌, 사가본부는 만남교류마당을 열었다.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며 한일 문화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

◇민단 사이타마본부(단장 경민표)= 10월26일 히다카시의 코마 신사 경내에서 10월 마당 행사를 열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지부 대항 율놀이대회와 노래자랑대회. 한국민요 및 아이들에 의한 태권도 연무 등도 펼쳐졌다. 빙고 게임에 참가한 아이들에게는 상품이 주어졌고, 농악군무가 마지막을 장식했다.

◇민단 오카야마 본부(단장 송찬석)= 10월24일부터 3일간 시내 각지에서 한국영화를 상영했다. 또한 한국요리교실, 강연회, 스포츠 등 6개 이벤트를 개최했다. 코리안 페스티벌은 제목으로 민단, 부인회, 청년회 등이 주관했다. 3일간 500명 이상이 모였다.

◇민단 효고본부(단장 차득룡)= 현내 각 지부가 개설하고 있는 한국학원에 의

한 연합문화제를 10월 마당으로 실시하고 있다. 25일 코베시 내에서 열었다. 가족과 친구들을 포함해 약 400명이 참가했다. 올해로 19회째 열리고 있는 행사다. 오전 중에는 한국어 수강생 12명이 변사가 되어 평소의 학습성과를 발표했다. 성적우수자 4명에게 한국왕복 티켓 부상을 주었다. 부인회 효고본부와 코러스부, 나가타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마루야마부인회, 그린코러스도 무대에 섰다.

◇민단 사가본부(단장 정청준)= 26일 시내의 656개 광장에서 만남교류마당을 개최, 한국문화를 현지 시민들에게 전했다. 아이들에 의한 무용 등이 호평을 받았다. ‘어머니의 맛’을 내세운 포장마차에는 긴 행렬이 생겼다. “아이들에게 한복을 입히고 싶어 참가했다”는 젊은 부부는 “한국의 맛과 행사장의 분위기를 기대했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만남교류마당을 통한 민간차원의 교류를 소중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민단 니시도쿄본부(단장 서흥석)= 10월15일부터 시즈오카현 이토해안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단원 50명이 참가. 서 단장이 차세대 육성을 테마로 기초강연을 했다.

〈민단신문〉

“킨키대학서 독도 위안부 등 한일현안 강의해요”



이성권 고베총영사... 일본 국회의원 비서관도 역임한 일본통

“킨키대학에서 강의하고 오는 길입니다. 지난해 특강 요청을 받고 250명의 학생들 앞에서 강연한 일이 있는데, 그 후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1년간 정규강의를 해줄 수 없느냐고요.”

니혼바시의 나니와호텔 로비에서 이성권 고베총영사가 소개를 했다. 그는 막 키키대학에서 강연을 끝내고 왔다고 했다. ‘한일비교문화론’을 주제로 해서 매주 한 차례씩 지난 3월부터 강연했다는 것.

이 총영사와의 얘기는 인근 도톰보리에 있는 한일관에서 다시 이어졌다. 나니와

호텔을 경영하는 박종석 전 월드옥타 오사카지회장과 최보인 재관서한인연합회 이사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두 사람은 부부다.

“한일 간 정치 외교 문화 및 한일간 현안들도 강의합니다. 위안부와 독도문제, 야스쿠니신사참배 등 현안도 다뤘습니다.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생각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소개합니다. 일본 정부 주장과 다르지만 한국 자료들을 보고 학생들이 만족해합니다.”

이 총영사는 가방에서 강연 자료들을 꺼

내보였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정부에 보낸 헤이트스피치 금지 권고안 자료도 있었다.

“지난 8월 재일민단이 제네바의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가서 진정해서 이뤄낸 내용이지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 언론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모르고 있지요.” 이 총영사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학생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일본은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을 아직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은 2005년도부터 외국인 참정권을 허용했다,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한국은 200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일본은 아직 인권위를 아직 만들지 않고 있다, 이미 120개 나라가 만들었지만 일본은 만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 일본 학생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는 이처럼 자료를 바탕으로 강연한다고 했다. 헤이트스피치에 대해서도 한일 간의 차이를 설명했다고 한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 총리나 정치인이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할 때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한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 한국



민들이 살고 있는 신오쿠보나 조선학교 앞에서 ‘한국인은 떠나라’고 시위한다, 일반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독도문제는 옛날의 지도를 꺼내놓고 접근하며, 위안부 문제는 인권문제 입장에서 조명한다고 소개했다. 국회의원도 지내고 코트라감사, 청와대 비서관도 거친 이성권총영사는 일본와세대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일본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도 일한 일본통이다.

(오사카=이종환 기자)



교토·오사카 동포들 위한 한국역사책 출간

재일동포 차세대들이 한국의 통사(通史)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교토·오사카와 함께 하는 한국사>(p 146)라는 제목의 중학교 2학년 학습 부교재로, 동경국제학원과 오사카의 금강학원 2교의 강사가 공동작업해 완성됐다. 학교 측 관계자에 따르면, 양교 교장과 역사 담당 교원 등 총 7명

이 각 장별 집필을 맡았다. 교토와 오사카에 뿌리 내린 한일관계사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이 이 책의 특징. 칼럼을 통해 교토와 오사카에 남아 있는 한일교류에 관한 사적, 재일동포 취락의 형성, 해방 후 식자 학급 ‘어머니학교’ 등을 다루기도 했다.

개발팀의 리더역을 맡은 금강

학원의 박성기(朴星奇) 교사는 “2012년까지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구성된 한국의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재일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난해하고 필요 없는 내용도 많았다”면서, “재일학생의 시선에 선 쉽게 익숙해 질 수 있는 교재가 필요했다”고 출간동기를 밝혔다.

(민단신문)



총영사관 소식

○... 주요오하마총영사관(총영사 이수준)은 시즈오카현 누마즈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11월 순회영사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순회영사는 11월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민단 동부지부에서 진행된다. 관련업무는 △전자여권발급신청 접수 및 교부, 사증란 추가 등 기재사항 변경 △재외국민등록신청 접수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 △위임장 영사확인, 운전면허번역인증, 가족관계등록, 국적, 병역업무 △기타 민원상담 등이다.

○... 주고베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이성권)이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일본관서지부와 공동으로,

문화공연 ‘2014 한일 산사음악회, 새로운 약속’을 11월 9일 오후3시부터 시코쿠 88개소 영장 제13번 사찰인 ‘대일사(大日寺)’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부 프로그램으로 한일 간의 문화와 인적 교류를 주제로 토 크쇼가 진행됐다. 이성권 주고베총영사, 이이즈미 가문 도쿠시마현지사가 출현했다.

○... 주히로시마총영사관(총영사 서장은)은 “이영환 부총영사를 단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된 일본 시모노세키 지역 상단이 최근 경북 포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들 상단의 포항 방문은 서장은 일본 히로시마 총영사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포항지역 수산물의

일본 수출·입 상담을 위해 마련됐다. 상단 참가자 중에는 연3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본내 대형 상단도 포함됐다.

○... 주나고야총영사관이 나고야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1월11일 상공회의소 5층 ABC회의실에서 ‘새로운 백년을 위한 한·일 경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강연 △일본의 글로벌 밸류 체인과 제3국 공동사업(김규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일한 무역·투자의 신조류(아베 마코토 아시아경제연구소 주임조사연구원에 이어 간치회가 진행됐다.



오사카 건국학교는 리모델링 중

일본 정규교과과정 가르치면서, 한국어 한국사 교육

오사카 스미요시구에 있는 건국학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서문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쪽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곳이 서문이겠지요?” 함께 간 최보인 관서한국인연합회 이사장이 운전대를 잡은 박총석 전 월드옥타 오사카지회장한테 물었다. 부부인 두 사람이 기자가 건국학교에 가는 길을 동행했다.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보고 안으로 들어서는 데, 지나가는 학생들마다 ‘안녕하세요’하고 인사를 했다.

“학생들이 예의바르지요?” 마중을 나온 최철배 건국국제문화센터 소장이 학생들의 인사 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물었다. 최철배 소장은 지난해까지 교장으로 있다가 올해 건국학교 국제문화센터 소장직을 맡았다고 한다.

“부산해사고등학교 소속으로 휴직하고 왔어요. 파견교사로 선발돼 와서 지난 3년간 교사로 근무한 후 돌아갈 무렵 교장직을 제안 받았습시다. 그래서 5년을 교장으로 보내고, 올해부터 문화센터를 맡고 있어요.” 사람 좋아 보이는 그는 “일본 온 지 10년이 돼 한국 돌아가면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건국학교는 15억엔을 들여 학교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했다.

작년 3월에 시작해 내년 3월 완공된다고 한다. “건축한 지 60년이 돼 건물이 노후화됐어요. 지진에 대비도 돼 있지 않아 고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정부가 50%, 현지에서 50%를 부담해서 공사하고 있다는 얘기가었다.

“학교가 낡으면 학생들이 오래 하지 않잖아요. 학생들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고 한 거지요.” 전체 학생수는 400명.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다. 고교 115명, 중학교 120명, 초등



학교 145명, 유치원 40명이라고 한다.

“교포 2,3세가 55%, 순수일본인 30%, 나머지는 뉴커머의 자녀들입니다.” 교포 자녀들은 오지 않으려 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인 학생들은 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한류붐이 일면서 한국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있다고 했다.

오사카에는 민족학교로 건국학교와 금강학교가 있다. 일본 정규교육과정 따라야 하는 이른바 ‘1조계 학교’이지만 과외로 한국어와 국사 태권도 사물놀이 등 우리말과 문화, 역사 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들로서는 그만큼 더 공부해야 하니 수고스럽기도 할 것이다.

“교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편입니다. 국어와 국사 교사는 한국 교육부 출

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초청하는데 응모자가 없어요. 월급도 많지 않은데다 휴직하고 와야 하니까 나중에 돌아가서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교사에 대한 처우가 낮다고 해도 과목별로 교사를 다 뒤야 하니까 인건비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었다.

“금강도 같은 상황일 테니 일부 과목은 교사 한사람이 두 학교를 오가며 가르치면 어떡냐”고 물으니 “그렇잖아도 합병얘기가 있었지만 동창회의 반대 등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한다.

“교포들과 뉴커머들이 모여 사는 쓰루하시 부근의 폐교를 인수하자는 논의가 있었습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부를 그쪽으로 이전하면 학생들이 늘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였습시다.” 통학버

스가 있기는 하지만 스미요시의 건국학교까지 오자면 학생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야 한다. 이 때문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옮기자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직 수면아래 잠겨있습시다만 앞으로 이 이야기는 계속 논의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최철배 소장은 2년 전 교장으로 있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발전방안을 한국 교육부에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교정을 떠나오는데 운동장에서는 상모를 쓴 학생 서너 명과 부채춤 군무 연습을 하는 20여명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민족의식은 이를 통해 이어지는 것일까?

〈오사카=이종환 기자〉



안녕하십니까?
~第25回幼小こども祭り~
어린이 축제 10/4(土) (12:30~)

民俗のあそび、物作りなど楽しいこといっぱい!
民謡・民舞・リズム遊びをはじめ、本場韓国の味が楽しめます!
お祭りなどの大会もあるよ!

幼稚園 生活発表会 11/1(土) 9:30~
オペレッタ・民謡舞踊・合唱・合奏など、子どもたちがいきいきと楽しみながら演じる姿をご覧ください。

小学校 学芸発表会 2/11(水) 9:00~
歌唱・創作劇・民謡楽器オペレッタ・合唱・合奏・民謡舞踊・児童全員の合唱など、一年間の学習の成果を発表します。

校内作品展
本年度の園工で仕上げた作品を中心に1~6年生までの絵画などを展示する予定です。(2月)に開催

※幼稚園・小学校の入学相談については、いつでもご連絡下さい!

お申込み、お問い合わせは
小園事務所 電話06-6606-4808
小園 事務局まで
TEL 06-6691-1231
FAX 06-6606-4808

2015年度
建国小学校
入試日程

- ① 出願期間 2014年 9/1~3/0
(志願書・検定料10000円を本校事務所へ提出)
- ② 選考日程 10/11(土)
- ③ 結果発表 10/14(火)
- ④ 入学手続 10/22(水)
- ⑤ 入学説明会 2/27(金)

★ 入学式 4/7(火) 9:30~

※2次入試については、学校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併設校入試★ 幼稚園 11/15(土)
中学校 1月17日(土) 高校 2月10日(火)

● お問い合わせは、<教務部>まで
〒558-0032 大阪府住吉区建里小野2-3-13
TEL 06-6691-1231, FAX 06-6606-4808
URL <http://www.keonguk.ac.jp/>
(志願書はホームページよりダウンロードできます。)

칼럼



한일관계 탓, 한국관광객수 2위로

대만 한국 중국 홍콩 순... 한국은 처음 2위로 밀려나



이종환
(월드코리아신문 발행인)

토요일에 찾은 오사카성은 중국어 사용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서울의 2호선처럼 오사카를 한 바퀴 도는 JR환상선을 타고 모리노미야 역에 내리자 천수각이 한 눈에 들어왔다. 오사카 성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천수각은 붉게 물든 단풍과 해자, 그리고 높은 성벽과 어울려 한껏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오사카의 진(陣) 400년(2014-2015)’이라는 깃발도 성 곳곳에 나부끼고 있었다. 오사카 성은 도요토미 히데

요시(豊臣秀吉)가 세운 것으로, 그는 이곳에 머물며 만년에 중국과 조선 정벌의 망상에 빠져들었다. 그의 무모한 모험은 동양 3국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수백만명을 죽음으로 내몬 채 7년만에 막을 내렸다. 일본에서 ‘분로쿠-게이초의 역(役)’이라고 부르는 임진왜란이다.

하지만 전쟁은 그것으로 마치지 않았다. 여진이 다시 일본 열도를 몰아쳤던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일본은 지배권을 둘러싸고 동군과 서군으로 갈렸다. 도요토미 가문을 지지하는 서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중심이 된 동군은 다시 싸움을 시작했다.

이들은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이 모여있던 오사카 성을 에워싸고 마지막 격전을 벌인다. 오사카의 진이다. 승자는 도쿠가와였다. 도요토미 가문은 이로써 몰락하고 말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일을 하늘에서 지켜보며 어떤 느낌에 잠겼을까?

사실 오사카 성을 걷다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된다. 한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 점령의 생각을 굳혔던 이 성이 이제 중국 관광객들에게 점령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것도 또 하나의 아이러니다.

“올해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9월말 현재 전년도 대비 79.8%가 증가했습니다.” 오사카성 인근 KKR호텔에서 만난 오사카관광청 소속 문걸씨의 말이다. 흑룡강성 목단강시 출신의 조선족 동포인 그는 8년전 일본에 유학생으로 건너왔다가 2년전부터 오사카관광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일본에 온 관광객의 25%가 오사카 방문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는 일본관광청의 9월말 통계를 보여준다. 일본을 찾은 각국 관광객수 통계였다. 1위는 대만으로 212만9천명. 전년대비 27% 증가했다고 한다.

2위는 한국으로 199만5800명. 그동안 1위를 차지해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대만보다 뒤떨어졌다고 한다. 냉랭한 한일관계의 기류 탓이라고 할까? 올해는 전년대비 2.7% 증가에 그쳤다고 한다. 3위는 중국대륙이었다. 올해 9월말까지 중국대륙에서 일본을 찾은 관광객은 178만8600명. 전년대비 79.8%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4위는 홍콩. 65만7천명으로 전년대비 19.8%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통계처럼 일본 열도가 대만과 홍콩, 중국대륙에서 온 관광객으로 넘치고 있는 가운데 오사카성도 중국어를 쓰는 관광객들로 가득차고 있다.

가을 단풍이 2월의 꽃보다 더 붉구나 하는 글귀를 떠올리며 거닐고 있을 때 한국어를 쓰는 관광객 한무리가 성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보니 군데 군데 다른 한국인 단체도 눈에 띄었다.

내년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에는 한국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것일까? 오사카성을 돌아보며 느낀 단상이다.



民團사설

커져 가는 한·일의원연맹에 대한 기대

한·일의원의 합동총회가 채택한 공동성명은 전 위안부의 명예회복과 상처 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조치를 조속히 취한다, ‘코노(河野)담화’, ‘무라야마(村山)담화’의 정신에 적합한 행동을 취한다 등 지금까지와 달리 한발 내딛은 것이긴 하지만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 지국장인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 시켰다 하여 기소된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성명의 원안에는 “일본 측은 한국 당국에 의한 일본의 보도기관에 대한 조치가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환경을 악화시킬 것을 우려했다”고 되어 있었다고 한다. 한일 정상회담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이 일본에서 두드러지는 등 양국관계의 새로운 가시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리 없다.

반대하는 한국 측과의 조정이 난항을 겪으며 시간이 지난 채 포함시키는 것이 보류된 것 같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일본의 일부 보도에 우려를 나타냈다”는 양론병기로 언급해야 했다. 문제는 이미 사법의 장으로 옮겨졌지만 공판의 추이에 따라 양국의 여론이 과열화될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국회의원 차원에서 결론을 찾는 진정한 토의를 계속하는 의미는 크다.

전 지국장님의 기소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계된 문제다. “당신의 의견에는 반대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주장할 권리는 묵숨걸고 지키겠다”는 프랑스 철학자의 명언 등을 인용하여 지한과 일본인으로부터도 한국은 심하게 질타 받고 있다.

여기에는 “많은 경우, 나라와 나라가 원한을 갖는 것은 실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유언비어에서 생긴 것”이라는 나카에 초민(中江兆民)의 말을 내던지고 싶다. 전 지국장님의 고발·기소는, 풍문이 될만한 국정운영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정부를 질타격려한 한국신문 칼럼에서 풍문만 잘라내고 풍성이 결여된 소문으로 만든 것, 즉 유언비어 유포에 의한 것이었다.

언론에는 양식이 요구된다. 자유와 동렬에 두는 것은 무리라 하더라도 적어도 차석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 ‘양식’이란 물론 국가 등 강한 권력으로부터 정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 종사하는 자가 그 프라이드 때문에 스스로

를 규제하는 그런 것이다.

한일 양국의 언론에 의한 공방은 나쁜 언설이 보다 질 나쁜 언설로 증폭되어 국민의식에 변조를 가져올 정도로 이상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이미 나라와 나라의 관계조차 결정적으로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곳까지 왔다. 전 지국장 문제를 기화로 양국관계에 대한 보도가 쌍방 언론의 양식에 호소하며 보통 상태로 되돌리는 노력을 아낄 때가 아니다.

관료와는 달리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이며 발언할 수 있는 정치가, 그 중에서도 한일·일한의원연에 소속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는 크다. 양국간의 쟁점 및 미묘한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데 있어서 이름과 얼굴이 떠오르는 상대측 의원의 생각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 필요에 응하여 신속히 기탄없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상대를 늘리고자 하는 강한 의사가 요구된다.

한일의 정계를 잇는 파이프는 노후화한 채 재구축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한 지 오래다. 쌍방 모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있어 국회의원 중견 및 젊은이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는

시도가 몇 가지나 있었다.

이것이 성공하지 않는 것은 쌍방이 ‘역사적으로 고유의 영토’로 삼는 도서 영유문제 외에도 보통 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안이 쌓여 왔기 때문이다. 한일의 정치가 앞에는 양국에 있어서 무엇이 대국적인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그것을 끌어당기는 데는 어떤 양보·타협이 필요한지, 알고 있어도 움직이기 어려운 현실이 가로놓여 있다.

정치적 파이프를 풀가동시켜야 하는 상황이 반대로 파이프 만들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근처에는 서로 반발·자극하면서 함께 고조를 보여 온 애국, 내셔널리즘에 의한 속박이 있다.

의원연은 간판뿐이라던가 총회도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던가 냉담한 시선에 노출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상대측에 대한 혐오감을 숨기지 않는 의원이 늘어날 정도로 악화된 관계 속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총회를 개최했다. 쌍방 의원단의 관계수복에 대한 의욕을 엿볼 수 있다.

양의원연이야말로 ‘여론’에 기죽지 않고 양국의 선린우호를 리드하는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케이호텔 서울 특 1급 호텔 승격

최상의 서비스와 자연, 예술, 문화, 컨벤션이 함께
어우러진 도심 속 최대 규모의 특급호텔



GUEST ROOMS



CONVENTION & MEETING



DINING & BAR

The **K** Hotel
SEOUL

TEL + 82. 2. 571. 8100 | www.thek-hotel.co.kr



인터뷰

김중섭 경희대 국제교육원장

“재외동포 및 외국인 한국어교육, 맞춤형 교육시스템 필요”



지난해 한국어 교육과정 개설 20주년을 맞이했던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을 오랫동안 이끌어 온 김중섭 원장을 만났다. 대한민국의 ‘한국어 교수 제1호’이면서 한국어교육 전공자로서 경희대 국제교육원장을 맡은 첫 번째 원장이기도 한 김중섭 원장은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어 대사’다. 한국어교육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남다르다는 의미이다.

지난 1993년부터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해 온 경희대 국제교육원은 한국어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굳혀 왔다.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교재, 교수법 등을 꾸준히 개발·발전시켜 온 국제교육원에는 해마다 전 세계 각국에서 6천여명의 외국인과 재외동포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있다.

초창기 2명의 학생에서 시작한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고, 그 중심에는 바로 김중섭 원장을 비롯해 한국어교육에 열정을 바치고 있는 120여명의 교수진들이 포진돼 있다.

김 원장은 “올해 봄에 교육전문그룹 ‘비상교육’ (대표 양태희)과 함께 한국어 온라인 교육 스마트엔진 ‘마스터코리아’ (<http://www.masterkorean.com>)’을 공식 오픈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교육원과 비상교육이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지는데 뜻을 모아 탄생한 ‘마스터코리아’는 국제교육원 정규과정의 외국인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강좌로 서비스되고 있다.

‘마스터코리아’의 모든 강의 콘텐츠는 경희대 소속 한국어 선생님들이 맡고, 수준별로 6단계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김 원장은 “마스터코리아는 국제교육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복습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수강생들을 배려해 한국어 뿐 아니라 중국어와 일본어, 영어 등 모두 4개의 언어로 홈페이지를 구성했다”며, “특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외국인 및 해외동포들 누구나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보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어는 바야흐로 세계 주요 언어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경쟁어’가

됐다”며,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한국어와 문화콘텐츠를 연결하는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세우고 관련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언어와 문화는 경제영역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며, “한국어 교재개발, 교사교육, 교육환경 등이 갈수록 중요한 시점에서 한글학교, 세종학당 등의 교육기관에 대한 범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종학당과 한글학교 등 담당부처가 다른 교육기관의 통합론에 대해 김 원장은 교육대상이 상이한 한국어교육기관에 대

한 획일적인 통합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비슷하다고 똑같이 하면 교육기관별 한국어 교육의 특성이 없어져 오히려 망칠 수 있다”며, “다만, 각 기관들 간의 유기적 연결을 기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재외동포교육사업에 대한 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승격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다문화교류네트워크 이사장직도 맡고 있는 그는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다. 경희대 국제교육원은 20년 전부터 장학금(수업료 50%) 혜택 등을 통해 실제로는 입양인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김 원장은 “그간 교육부를 중심으로 영어, 일본어, 태국어, 스페인 등의 아동용 한국어교재를 개발해왔지만, 앞으로는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위한 교재 개발도 필요한 시점이다”고 제안했다. “나이 들면 배우기 힘든 게 언어이기에 의욕은 있으나 마땅한 교재를 찾기 힘든 외국인들과 재외동포들을 위해 관련기관에서 지역별, 대상별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재외동포교육정책과 관련해 “재외동포교육은 단지 한 두 개 기관의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체험학습이 대부분인 이벤트행사 중심에서 탈피해 한국어 구사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예: 한국어 장학생 등)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동포 차세대들을 위한 별로 프로그램 마련 및 콘텐츠 개발을 교육부, 재외동포재단 등이 긴밀하게 협력·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고영민 기자)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1천600여명의 세계 각국 학생들이 11월5일 오전, 경희대 본관 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가졌다.

미주총연 '2014 차세대 컨퍼런스 및 한인회장 워크숍'



“차세대 결속하는 가슴 뭉클한 행사”... 글렌데일 소녀상 단체참관도



이정순 회장



에드 로이스 미하원외교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면서 리더십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새삼 깨달았다”면서 “이번 행사가 보다 나은 변화를 위해 씨를 뿌리는 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격려사를 했다. 재외동포재단의 자문위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 전의장은 “내년은 대한민국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라면서 “대한민국이 식민지의 고난과 6.25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서서 지금 세계 10위 경제권에 진입을 하는데 해외 동포들의 역할이 컸다”고 치하했다. 박 전의장은 “한반도의 통일의 새로운 발전의 기회”라면서 “미주동포들을 포함한 8천만 우리민족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스티븐 최 얼바인시장, 에드워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로레타 산체스 미 하원의원, 프렛 스미드 부에나파크시장 등 내외빈들의 축사도 뒤따랐다. 특히 에드워드 로이스 미하원 외교위원장은 “한인들의 정치력이 크게 신장했다”고 소개하고, 자신의 보좌관을 맡아 20년간 수고한 영킴 후보가 캘리포니아 주하원 65 지구에 출마했으니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차세대 컨퍼런스 강사로 초청된 데이빗 오 필라델피아 주하원의원과 미국에서 주차장 설계 및 건축으로 유명한 팀하스 건축회사의 하형록 대표도 영상물 소개에 나서 단상에 올라 인사를 했다. 데이빗 오는 “미주총연이 젊은 세대의 힘을 결집하고 리더십을 배양하는 기회를 만든 것에 대해 축하한다”고 말하고, “각 세대들이 서로 밀고 당겨주는 역할

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팀하스사의 하대표는 진정한 성공은 역경 속에서 나온다며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으로, 신개념의 주차장도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매진한 것이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행사 이틀째에는 차세대 참여자들의 요청으로 글렌데일에 세워진 소녀상 단체 참관일정도 진행됐다. 행사를 총괄진행한 김길영 미주총연 사무총장은 “LA 인근 글렌데일에 소녀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차세대들이 일정을 바꿔서라도 꼭 가고 싶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방문하게 됐다”면서

“우리 역사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일깨우는데 영향을 준 참관행사”라고 평가했다.

2박3일간의 일정을 진행하면서 이틀째 만찬과 마지막날의 조찬에서는 참석한 차세대와 한인회장이 각기 돌아가며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LA에서 프로그램에 이끌려 참여했다는 조석현씨 부부는 “미국의 유대인과 중국인은 정치 경제분야에서 성공한 인사들이 각기 2세를 이끌어준다”면서 “우리 미주한인사회에서도 이처럼 차세대들을 엮어주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행사를 하게 된 것을 보고 너무 가슴벅찼다”고 소개했다.

또 한인회장 워크숍에 참여한 고경열 엘파소한인회장은 “중국 화교들은 결속력이 강하다. 심지어 선출직 정치인 모임인 ‘CEO(Chinese Elected Officers) 모임’도 있다”면서 “우리도 정치력 신장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순 미주총연 회장은 행사를 마감하면서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너무 감동적이다, 가슴뭉클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면서 “이번 행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더 알차고 만족스런 행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순 회장은 또 김길영 사무총장과 정재준 수석부이사장, 이주향 총연간사, 조규자 총연재무가 준비와 진행을 위해 각별히 수고를 했다고 격려했다.

(오렌지카운티=이종환 기자)

미주한인 차세대 리더십 양성을 위한 ‘2014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 및 한인회장 워크숍’이 미주총연(회장 이정순) 주최로 10월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애너하임 웨라톤호텔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전국에서 추천받아 참여한 한인차세대 100여명과 강사, 지역 한인회장, 미주총연 임원 및 이사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24일 오후 7시에 시작된 개막식에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진교륜 전 미연방정부 원호성 차관보, 스티븐 최 얼바인시장, 에드워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로레타 산체스 미 하원의원, 프렛 스미드 부에나파크시장 등 내외빈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김영호 미주총연 이사장의 개막선언에 이어 단상에 오른 이정순 미주총연 회장은 환영사에서 “미주총연은 미 전국 50개주에 168개의 한인회를 산하 결속단체로 두고 있다”면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치 경제 IT 교육 커뮤니티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십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미주총연 회장직을 맡으



미주총연 차세대 컨퍼런스 및 한인회장 워크숍 참석자들이 글렌데일 소녀상을 방문했다.

“한반도 통일 위해 동북아 투자공동체 형성해야”



이승률 이사장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11월6일 제7회 국제학술회의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도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안보 위협에 강한 역지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국내 투자가 활발해질 때 한국이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장기적으로 남북한 통일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사장 이승률)은 11월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제협력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경제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제7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중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장(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은 ‘한반도 통일경제를 향한 동북아 투자공동체 형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경제협력력을 통해 북한을 개방체제로 유도하는 방식을 Bottom-Up 접근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가 남북경제 협력관계를 증진하면 안보 관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우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남북의 경제협력력을 증진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동북아 국가들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년간 우리기업이 해외 투자 금액은 1천600억 달러에 이르지만, 국내에 유입된 투자금액

은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안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유치하면 북한의 안보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기업이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만큼, 북한을 암묵적으로 돕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인 것. 그리고 남과 북의 경제협력도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으로 보았다.

그는 남북경제협력력을 이루기 위해 주변 열강들과 한국 기업들이 북한에 컨소시엄을 이뤄 공동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중국의 2009년 창지투(장춘-길

림-도문) 개발계획을 포함해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을 다자개발계획으로 재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TI는 중국, 한국, 북한, 일본, 극동러시아, 몽골 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다는 것.

또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 사이에 상호 이웃나라 방문의 관광 교류가 더 활성화 돼야 한다면, 관광 교류 활성화가 북한으로 파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국제학술회의는 안 위원장의 기조강연 외에 2개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역임한 남성욱 고려대

교수의 제1세션 주제발표도 청중들의 주목을 받았다. 남 교수는 “현재 한반도 연안축 개발전략이 소문자 ‘u’에 멈춰 있다”면서 신의주, 목포, 부산, 나선을 축으로 한 대문자 U자형 경제개발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부분에서 “나선, 선봉 지역은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지만, 우리나라가 구경꾼에 그쳐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과 대만이 활발한 인적교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또 다른 통일 모델로 예시했다.

제2세션은 ‘통일을 향한 한미 군사동맹과 한중안보협력의 조화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고, 박종수 글로벌경제평화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경영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했다.

1·2세션에서는 이밖에 흥은표 한반도통일경제연구소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전재성 서울대 교수, Maison Richey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교 교수, 다케시다 히데시 일본 다쿠쇼쿠대 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반도 통일과 국제협력 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임원, 자문위원,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석호 기자〉

“해외한인사회도 북한인권엔 관심 가져야”

10월23일 LA서 행사… “북한인권의 날 제정운동도 할 것”

LA 임태랑 회장



“북한인권문제에 계속 눈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해외한인사회에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LA 코리아타운의 JJ그랜드호텔에서 만난 임태랑 회장은 “최근 LA에서 북한 인권회복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는 미주총연이 개최한 ‘2014 차세대 컨퍼런스 및 한인회장 워크숍’을 위해 LA를 들렀을 때 임회장을 만났다. 임회장은 미주한인사회 위상 제고를 위해 한미HR포럼을 창립, 대표로 활동해왔다.

“10월23일 JJ그랜드호텔에서 북한인

권회복 추진대회를 가졌습니다. 한미 HR포럼과 미주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등 보수 애국단체 소속 한인 50여명이 모여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갖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임회장은 이 행사에 참여한 LA지역의 단체는 물론, 뜻을 같이 하는 전세계 한인 단체들과 함께 북한인권회복운동을 해 나가고 싶다고 뜻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정부에 요청하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 북한인권보존기록소를 설치할 것, 북한주민과 대북인권단

체를 지원하고 탈북자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는 4개의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에 8만명에서 12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수용돼 있으며, 또 20만에서 40만명에 이르는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전체주의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 임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북한인권의 날을 제정하는 운동도 펼쳐나가고 싶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유럽의회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캐나다는 9월28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북한인권의 날은 전체주의 압제에서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해보는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렌지카운티=이종환 기자〉

윤인진 교수 “재외동포정책, ‘디지털 디아스포라’ 에 주목해야”

“인터넷 기반, 한민족 전자공동체 발전”... 2014년도 해외한인연구 성과확산 학술대회서

“재외동포연구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재외동포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디지털 디아스포라’ (Digital Diaspora)의 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에 기반한 ‘한민족 전자공동체(Global Digital Korean Community)’의 발전은 거주국과의 정치외교적 마찰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해외한인연구 중앙허브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외동포재단이 운영하는 ‘코리안넷’처럼 앞으로는 온라인 플랫폼(platform)이 ‘해외한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대 해외한인연구 중앙허브 사업단(단장 윤인진), 동덕여대 한중미래연구소 재중한인연구 사업단(단장 김윤태), 청암대 재일코리아연구소 재일한인디아스포라 연구사업단(단장 정희선),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재러한인디아스포라 연구사업단(단장 홍웅호)은 10월29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해외한인연구의 성과와 새로운 과제’란 주제로 ‘2014년도 해외한인연구 성과확산 학술대회’를 열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단장 전택수)에서 지난 2011년부터 지원해 온 ‘해외한인연구’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새로운 학술 및 정책연구의 방향과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학술대회에서 윤인진 교수는 ‘해외한인의 연속적 이주와 해외한인사회의 다원화: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에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섰다.

윤 교수는 해외한인 이주역사 4단계를 설명하며,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재외한인의 이주는 모국을 떠나 거주국에 한 번에 정착하는 단선적이고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보다 나은 기회를 찾아 ‘연속적’으로 이주하고 다수의 거주국들에서 정착과 재정착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해외한인사회가 ‘다자적 동족집단모델’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조선족 동포, 독립국가연합의 고려인 동포, 북한주민, 그리고 한국인의 해외이주가 가속화되면서 재외한인사회 내에는 여러 출신국가 배경의 한인들이 공존하면서 동족 내 다자적 집단(multilateral ethnic group)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동질적인 종족집단(mono-ethnic group)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재외동포정책의 새로운 과제로서 “세대, 이민시기, 출신국, 사회계층 등에 의해 더욱 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외한인사회 내에서 하위집단들 간



의 차이와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고 통합해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인가가 향후 재외한인사회와 한국정부의 중요한 과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서로 고립된 존재로 살아온 각국의 재외한인들을 서로 연결해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의 협력자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재외동포정책 방향으로 △정책지원의 형평성 확보

△재외한인사회 내 하위집단들 간의 분업과 연대 강화방안 모색 △신이주민에 대한 선주민의 배려와 포용 등을 제시했다. 정책 지원 형평성과 관련해, “예산지원을 국가별로 총액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배분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분업과 연대 강화방안과 관련해선 “세계한상대회와 같은 동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처럼 정부주도의 ‘top-down’ 방식

이 아닌 한상(재외동포)들이 주체가 되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bottom-up’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뉴욕한인회가 조선족을 한인회 회원으로 받아들인 것은 동포사회의 통합과 역량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중국, 일본, 유럽 등 다른 지역의 동포사회도 관공과 포용의 가치를 발휘해 거주국 내 초기 사회적응과 통합에 도움이 필요한 신이주민 동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윤인진 교수의 발제에 이어 △재중한인사회 연구사업의 성과와 과제(우병국 동덕여대 한중미래연구소) △한일관계 속의 재일코리아와 미래(정수현 청암대 재일코리아연구소) △고려인이주 150주년 기념사업과 러시아지역 해외한인연구사업단의 역할(홍웅호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등의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고영민 기자〉



“문화발전이 평화를 가져옵니다”

유럽의 한류 전도사, WCN 송효숙 대표

초빙해 차별화된 공연기획의 장을 펼쳐왔으며, 특히 한국의 재능 있는 신인 음악가들을 발굴해 국제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송효숙 WCN 대표는 “WCN은 유럽과 한국을 잇는 문화예술 네트워크의 선두 주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문화예술계에 공헌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며, “아울러, 유럽의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세계 정상급의 클래식 공연 영상물을 한국으로 배급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음악을 통해 유럽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WCN은 올해도 슬로바키아(9.30), 우크라이나(10.9), 불가리아(10.15) 등 동유럽 3개국에서 친선음악회를 열었다. 친선음악회에는 현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한국의 뮤지션들이 대거 출연했으며, 현지 정계 인사와 각국 외교단을 비롯해 우리 동포 등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2011년 제1회 우크라이나-한국 친선음악회를 개최한 이래로 해마다 유럽 각국에서 친선음악회를 열고 있는 송 대표는 “평화가 오면 문화가 발전하는 게 아

니라 문화발전이 평화를 가져온다”며 “오랜 유럽생활을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가 인류 소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절실하게 체험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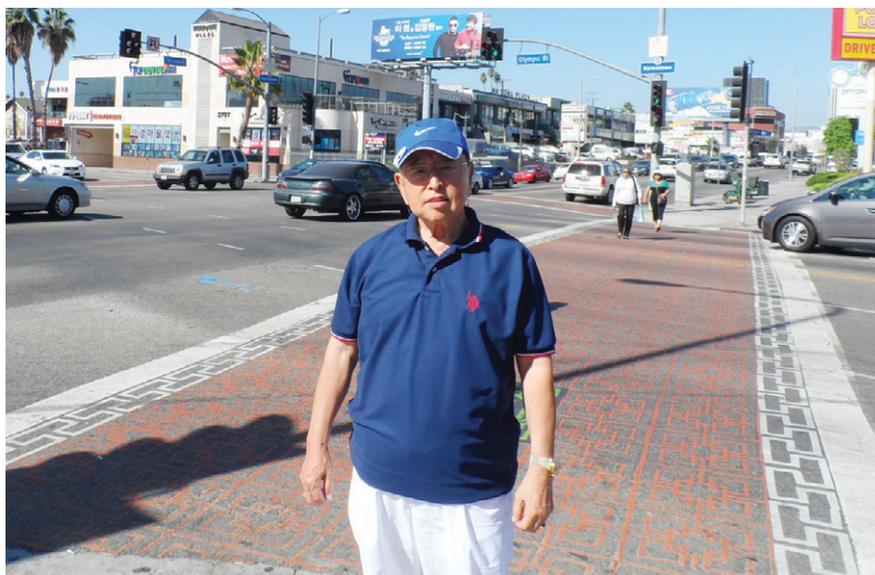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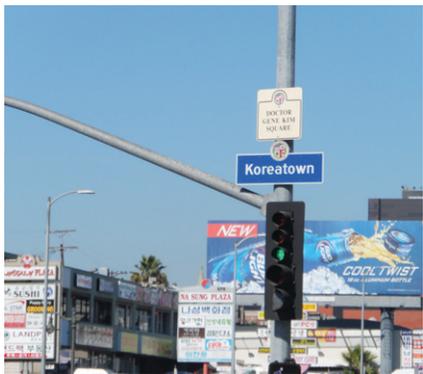
WCN은 올해 한국에 지사(WCN KOREA)를 설립해 국내 네트워크를 더욱 확충하고, 유럽 친선음악회를 내년에는 유럽 7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공연 기획뿐 아니라 교육 콘텐츠의 교류분야도 확대해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마스터클래스, 아카데미 체험 프로그램 등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고영민 기자〉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WCN(World Culture Networks, 대표 송효숙)은 유럽과 한국 간 문화교류를 통해 가치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11년 설립됐다.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가들을

김진형 회장 “LA코리아타운에 제 이름의 광장이 들어서서 영광”

9월18일 현판식 가져
LA한인페스티벌 창립자



LA 코리아 페스티벌의 창립자인 김진형 회장을 만난 것은 리버사이드의 도산 안창호 선생 유적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다음날이었다.

기자는 10월24일부터 26일까지 오렌지 카운티의 애너하임 웨라톤호텔에서 열린 미주총연 주최 ‘2014 차세대 컨퍼런스 및 한인회장 워크숍’에 취재자 참여했다가 27일 민주평통 오렌지카운티센터에고 협의회 권석대 협의회장의 안내로 리버사이드에 있는 안창호 선생 유적지를 방문했다.

그리고 이튿날 김진형 회장을 만났던 것. 김회장은 전달인 9월18일 LA코리아타운에서 경사스런 일을 겪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광장에 표지판을 붙이는 현판식 행사가 열렸던 것. 버몬트 예비뉴와-올림픽 블러바드가 교차하는 버몬트-올림픽 네거리에 ‘김진형 광장’이라는 현판이 내걸린 것이다.

“이 네거리가 김진형 스퀘어로 명명된 것은 1년전인 2013년 11월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영예로운 현판식을 가졌지요.” 김진형 회장은 현판이 걸린 장소

를 안내해 달라는 기자의 말에 마지못해 따라나서서, 결국 사진촬영에 응했다.

표지판은 네거리 각 모서리마다 반듯하게 붙어있었다. 코리아타운이라고 쓴 표지판 위에 나란히 부착된 것도 있었다.

“1968년 미국 유학의 꿈을 안고 LA에 정착한 저는 당시 중국타운과 일본타운을 돌아보고 한인동포사회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코리아타운을 세우는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들불을 가리지 않았지요.”

이렇게 해서 코리아페스티벌도 만들고

결국 LA시정부로 코리아타운으로 구역도 지정받았다고 한다. “LA시에서 처음 코리아타운으로 지정해준 곳이 제 이름의 광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버몬트 예비뉴와 올림픽 블러바드는 코리아타운의 시작 점이었지요.”

코리아타운은 당시에 비하면 크기도 몇 배로 커졌고, 사람수는 몇십배로 늘었다. “차이나타운에 중국어간판이 있듯이 코리아타운에는 우리말 간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가게는 물론, 미국인 가게도 설득했습니다. 한글간판을 달면 한국인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러니 달자고 호소했지요. 제가 직접 그러서 단 것도 62개나 됩니다.”

그는 이 일과 함께 코리아타운 번영회도 조직했다. 그 결과 1974년 LA에서 처음으로 코리아페스티벌과 함께 퍼레이드가 열렸다. LA시가 코리아데이를 공표하고, 코리아타운의 경계를 설정해준 것은 그 이후다.

“이제 여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사회의 일에도 나서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김회장은 “할로윈 데이 때 미국 친구들한테 갈라줄 사탕을 사러 코스트코로 갈 것”이라면서 “그래도 미국 친구들은 챙겨야지요”라고 말했다.

〈LA=이종환 기자〉

파독광부 간호사 46명, 7박8일간 고국방문



10월23일 The-K 호텔에서 환영연

1963년 12월23일. 247명의 파독광부 1진이 김포공항에 모였다. 우리나라가 독일과 양국경제협력을 맺은 지 2년 뒤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일로 떠났다. 1961년 12월, 독일은 1억5천만 마르크(약 3천500만 달러) 상업차관을 한국에 제공했고, 산업화가 한창인 독일에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한국인들이 파견됐다. 당시 한국의 GNP는 69달러에 불과했다. UN에 등록된 국가 중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한국이었다.

지하광산 1천 미터, 섭씨 35도나 되는 찜통 같은 작업장에서 고통을 참아가며 이

를 악물고 일했다. 1977년까지 독일로 파견된 광부들은 모두 7천936명이었다. 1966년에는 파독간호사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떠났다. 이들은 ‘동양에서 온 천사’라고 현지에서 불릴 만큼 성실하고 친절했다.

독일에서 번 돈을 한국의 가족들에게 보낸 이들은 우리나라에도 천사와 같은 존재였다. 한국경제에 큰 힘이 됐다. 뒤이어 파견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합하면 모두 2만여 명이 독일로 파견됐다. 1억5천만 마르크의 상업차관과 광부 간호사들이 한국에 보낸 증자돈으로 우리나라는 경제

발을 했다. 경부고속도로와 제철산업, 자동차산업, 섬유산업, 조선 사업을 일굴 수 있었다.

“참으로,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겠습니까.” 10월23일 저녁 6시, 서울 The-K 호텔 한강홀. 파독산업전사 세계총연합회 고국방문 환영연이 열렸다. 7박8일간 서울과 각 지방에서 열리는 행사가 이날 환영연으로 시작됐다.

단상에 오른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일어 통역관이었다. 독일 경제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해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독일정부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인물. 그가 이날 환영연에서 축사를 했다. 올해는 파독광부가 독일로 떠난 지 51년이 되는 해.

“참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은 지금 아시아 태평양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고생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독광부 간호사 46명이 참석한 자리였다. 독일동포뿐만 아니라 미국(2명)과 캐나다(1명)에서도 모국을 방문했다. 축하 무대가 앞서 마련됐고, 백 원장이 모국을 찾은 파독광부 간호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백 원장은 이날 행사를 후원한 The-K

호텔의 신현태 상임감사를 무대 위로 불렀다. “신현태 감사가 파독광부 간호사들을 위해 독일에 아리랑파크를 건설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신현태 감사가 아리랑파크를 건설함으로써 파독광부 간호사들의 업적을 기념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백 원장은 또한 자신은 경기도 양평에 독일문화원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파독광부 간호사들이 만든 역사가 이처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날 환영연에는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했다. 권영민 전 독일대사, 손성웅 전 함부르크총영사, 이규택 한국고직원공제회 이사장, 김두관 전 경남지사, 이수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김정수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한호산 독일유도대표 명예감독 등이 참석했다. 이규택 이사장,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축사를 했고, 이수구 총재는 총연합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고창원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장은 축사에 대한 답사로 “역경을 이겨내고 이 만찬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파독광부 간호사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독광부 간호사 모국방문단은 24일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어 속초, 울산 현대, 국미 박정희 기념관, 거제도 등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예센, 북홀 등 중부지역을 비롯해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등 전 독일 지역 광부 간호사들로 구성됐다.

〈이석호 기자〉

World-Okta

전세계 68개국 130개 도시를 넘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차세대 무역스쿨 | 해외한인 글로벌마케팅사업 | 해외한인기업 해외인턴십
해외정보 마케팅사업 | 글로벌 창업지원사업 | 청년인력 해외취업지원사업



아! 대한민국 74



김정남

〈본지 고문, 전 청와대 사회교육문화수석〉

1971년, 정부는 경주역사 관광지구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가장 규모가 큰 쌍분인 98호분(황남대총)을 발굴하기로 하면서 작은 155호분을 먼저 시험 발굴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기서 금관을 비롯, 총 1만 1,526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여기서 백화수피(白樺樹皮-자작나무 껍질)에 그린 천마도 2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무덤을 천마총(天馬塚)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가운데 보존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한 점이 1978년에 국보 제207호로 지정되었다. 유일하게 남은 신라시대의 회화작품이기 때문이었다. 1973년 발굴 당시 천마총에서는 자작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칠기로 제작한 말다래(障泥)-흙이 튀지 않도록 안장 양쪽에 늘어뜨려 놓은 천이나 나무껍질 장식)가 각각 1쌍씩 6개가 나왔는데, 그중 국보로 지정된 백화수피천마도(白樺樹皮天馬圖)만이 세상에 공개되었

천마도

던 것이다. 이 천마도는 흰 물감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백마의 모습이 뚜렷하다.

2014년 3월, 천마총 특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천마도 한 점이 또 확인되었다. 죽제 말다래의 흙과 녹을 벗겨내고 약품처리를 하는 과정에서였다. 죽제 말다래는 얇은 대나무살을 엮어 바탕판을 만들고 그 위에 삼베로 된 천을 덧댄 뒤 천마문양이 담긴 금동판 10개를 금동 못으로 붙여 장식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발굴 당시에는 녹이 슬어 형태를 알 수 없던 금동판 장식이 바로 천마도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 금동으로 만들어진 세공 말다래의 천마는 회화가 아니라 금동 금속판으로 천마 몸에 비늘 무늬, 마름모 무늬, 점열(點列) 무늬 등을 가득 채웠으며, 눈과 귀 등의 모양이나 목과 꼬리의 같기도 기존의 백화수피제 말다래의 천마와 유사하다. 다만, 백마가 아니라 황금빛 천

마라는 점이 다르다. 이 금동으로 만들어진 천마 세공 말다래는 말 그림이 생생할 정도로 완벽하게 남아 신라 미술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백화수피 말다래에 그려진 나머지 천마도도 함께 전시되었다. 이는 1970년대의 열악한 기술로는 복원이 불가능했던 것을 41년이 지나 21세기 첨단 보존처리 기술로 이루어 낸 성과라 할 수 있다. 천마총에서 나온 말다래 6개 중, 나머지 대나무 1점과 칠기 1쌍은 훼손이 심각해 형태를 분간하기 어렵다. 이로써 백화수피 말다래에서 나온 2점의 천마도와 대나무 말다래에서 나온 금동 금속판 천마도만이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천마총의 주인은 신라 소지왕(재위 479~500) 또는 지증왕(재위 500~514)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강만평(三江漫評) 55



정인갑

〈전 북경 청화대 교수〉

북경의 지리와 역사

몽고족이 원을 세우며 정한 수도가 주구점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20km 이동한 지금의 석경산구(石景山區) 일대이다. 지하철 1호선의 서쪽 종착역 평과원의 앞 정거장이 '고성(古城)' 역인데 바로 옛날 원나라가 수도의 본거지이므로 '고성'이라 부른다.

명과 청이 왕궁의 위치를 원의 중심지로부터 동쪽으로 약 10km 이동하여 지금의 자금성으로 옮겼다. 그러나 유람지나 피서지 및 왕족의 별장을 다 서쪽에 두었다. 이 귀족 동네가 지금은 중국 교육과 정치의 중심지로 됐다. 북경시 대학의 거의 다와 국가 수뇌부가 있는 중南海(中南海), 방송국 등 요해 부서가 다 천안문 서쪽에 있다.

북경을 장악하려면 이 서쪽을 장악하여야 한다.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6월 4일 새벽 여러 개 군부대(대학생 단식을 진압하는데 대한 각 부대의 견해가 달랐음)가 동서남북의 같지 않은 방향으로부터 진입하며 북경시를 통제하였는데 등소평(국가주석)은 그들이 가장 신임하는 28군단에게 서쪽 지역을 맡겼다. 동, 북, 남으로부터 진군한 부대에게는 탄알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이겠다.

옛날 상품의 주축은 양식과 천이었다. 대량의 양식과 천이 남방으로부터 북경으로 몰려들었으며 주요 교통수단이 운하였다. 지금 북경시 중심지와 통주구

의 사이가 바로 운하의 종점이며 실어온 양식과 천을 동쪽에 부리었으므로 그쪽이 자연히 장사꾼 부자들의 집결지로 됐다. 그때의 동쪽은 지금 북경역, 국제호텔에서 약간 동쪽이었다.

국제호텔에서 24선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가노라면 나타나는 정류장-녹미창(祿米倉)은 쌀로 봉급을 주는 곳이고, 건면호동(乾面胡同)은 밀가루로 봉급을 주는 곳이며, 선판호동(船板胡同)은 선박 정비소, 해운창(海運倉)은 운하에서 부린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이다. 이 장사꾼 동네가 동쪽으로 약 1~2km 정도 확장된 것이 지금 북경의 상업중심지이다.

원나라는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봉기군에게 소멸된 것이 아니라 몽고족 전체가 북쪽 고향으로 도망간 것이다. 유생역량을 보존하였으므로 도망간 후 끊임없이 남침했고 따라서 명나라 때 북쪽은 줄곧 전쟁터였다. 팔달령(八達嶺) 장성은 바로 명나라 때 몽고족의 남침을 막기 위해 쌓은 것이다. 북쪽 변경을 확보하기 위해 명나라는 부득불 수도를 남경으로부터 북경으로 옮겼다.

아마 이런 원인으로 북쪽에 살기를 싫어했는지 그곳이 빈 동네로 돼 버렸다. 1990년 아세안 게임과 2008년 올림픽의 선수촌이 모두 북쪽에 정해진 원인은 그곳만이 빈 자리였기 때문이다. 중공정부는 중국주최의 올림픽을 대비하

여 천단공원 동남쪽의 약 2km² 면적의 부지를 수십 년간 비워두었다.

1990년 아시아 올림픽을 중국에서 치르게 되어 북경시 건설 담당 부시장 장백발(張柏發)이 서울 88올림픽 선수촌을 견학 한 후 이곳이 너무 좁아 선수촌을 북쪽에다 만들었다. 개혁개방 후 부동산 업자들도 북쪽에 집을 대량으로 지으며 풍수가 좋다는니 뛰니 하며 떠들어대고 있다. 이젠 북쪽이 빈 동네가 아니다.

남쪽은 아마 풍수가 나쁘다고 인정해서인지 가난한 동네로 됐다. 지금도 남쪽에는 국가기관, 고급 상점, 병원, 대학, 호텔 등이 없으며 부동산 가격도 다른 데보다 30% 정도나 싸다. 옛날 못사는 서민과 온갖 거지, 장인, 광대꾼들은 다 남쪽에 집중돼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고관대작은 당연 거지동네에 살기는 만무하므로 남쪽은 전통적으로 순수 북경인의 비중이 가장 큰 동네이다. 필자가 북경대에 다닐 때 북경시의 방언을 당연히 남쪽에 가서 조사하곤 하였다.

지금 북경시의 패턴은 수천 년 전부터 서서히 형성된 것이며 지금 북경 도시 건설을 할 때도 역사전통이 기초에서 진행한다. 원조부터만 따져도 700년 전부터 형성된 관념이 지금도 강력히 작용하는 현실로부터 중국인의 보수성을 실감할 수 있다.

북경은 서귀(西貴), 동부(東富), 북공(北空), 남궁(南窮)이라는 설이 있다. 즉 서쪽은 귀족동네, 동쪽은 부자동네, 북쪽은 빈 동네, 남쪽은 가난한 동네이다. 이는 천만 맞는 말이며 그 유래가 유서 깊다.

북경에서 인류가 가장 일찍 정착한 곳은 서쪽이며 동쪽으로 점점 확장해 나아갔다.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주구점(周口店)이 약 50만 년 전에 북경원인(猿人)이 살던 고장이다. 이곳이 아마 북방 중국인 조상의 발원지일 것이다. 그 후 문명사회로 진입하여 하·상·주(춘추·전국)로부터 원 이전까지 수천 년간 북경지역은 줄곧 계·연 등으로 불리며 작은 제후국의 수도나 지방정부의 소재지였다.